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조용하(동아대·교수)
- ▶ 연구보조원 : 이재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은 현재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동시에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주역들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지표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봉사활동, 기부 등 청소년들의 나눔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정책적 현황에 대한 문헌연구,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에 대한 양적, 질적인 실태조사,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 FGI, 정책자문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 청소년들의 나눔활동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정책적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문위원으로, 양적 실태조사의 대상자로, 질적 실태조사의 대상지로, 또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연구의 결과와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개선방안들이 향후 한국 청소년들의 공동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사회, 나아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양극화, 개인주의의 강화 등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영향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둘째, 국내외 주요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현황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셋째,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에 대한 양적, 질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한 다음, 넷째,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최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83.9%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51.8%가 물질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눔활동 관련 사회자본, 도움기회, 주변인 인지, 개인규범, 이타적 동기, 나의 즐거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눔활동 중 기부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의 순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조사결과에서도 양적 조사와 비슷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FGI에서는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확대 필요,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필요, 청소년 기부활동의 신중한 활성화의 필요,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 강화,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 청소년 나눔활동의 지역사회 연계강화,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 코디네이터의 신설,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나눔활동, 봉사활동, 기부활동, 청소년 나눔교육, 청소년 봉사관련 동아리활동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및 내용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 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등의 트렌드들이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하에,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참여요인,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참여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둘째, 국내외 주요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적 지원현황의 특성, 셋째, 청소년의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질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한 다음, 넷째,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쳐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최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 국내외 문헌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어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현황 등 국내외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문헌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음.
- 콜로키움 개최 : 이 연구의 주제인 나눔활동의 학술적 개념인 도움행위의 개념 및 원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고려사이버대 전신현 교수님을 모시고 2015년 2월 9일(월) 오후 2시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란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 양적 설문조사 : 앞의 이론적 논의 부분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조사시점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률표집을 통해 2015년 5월~7월 사이에 조사면접원들이 약속된 일시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self reported)식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질적 면접조사 :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의 전국 5개 권역에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명씩 총 15명을 선발하여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의 내용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 : 자원봉사, 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 등 이론적 논의를 거쳐 구성된 설문지 구성안에 대해 학계, 현장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 FGI :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가, 청소년 기부 전문가, 청소년 자원봉사, 기부활동 담당관련 교사의 6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음.
- 정책협의회 : 실행계획서 작성단계에서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연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 1차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 2차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워크숍 : 마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정책, 현장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하였음.

3. 연구결과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83.9%가 전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78.1%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외에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45.1%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부활동에는 전체 청소년들 중 51.8%가 지난 1년간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에는 나눔활동 관련 조직 사회자본, 도움기회, 주변인 인지, 개인규범, 이타적 동기, 나의 즐거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해서는 기부활동 참여경험, 참여횟수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경험, 참여횟수가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경험, 참여횟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제일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적 조사결과에서도 양적 조사와 비슷한 결과들이 도출되었음.
- 전문가 FGI를 통해서,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확대 필요,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필요,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활동 활성화의 문제, 청소년 기부활동의 신중한 활성화의 필요,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의 강화,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 코디네이터의 신설 필요 등이 제시되었음.

4. 정책적 제언

- 첫 번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 :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중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려나가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의 자발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두 번째,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 강화 :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의 자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연계, 봉사학습의 강화, 인정보상제의 실시 등으로 자발적 참여동기가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이 필요함.
- 세 번째,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개별적인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동아리활동의 형태로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함.

- 네 번째, 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 :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돈을 버는 연령대는 아니지만 기존의 자원봉사 외에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 기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다만, 기부활동 활성화를 부작용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소액기부 프로그램 형태로 제한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섯 번째,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청소년 나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여섯 번째,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 : 학교 담당자의 잦은 교체, 임시 위주 학교문화로 인한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와의 연계 약화 등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간의 연계가 많이 미흡하므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이 필요함.
- 일곱 번째,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 인센티브 강화 : 각 학교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들이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많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의 업무가산점 등을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이것이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각 학교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 담당교사에 대한 인사고과에서의 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문 연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여덟 번째, 두불넷 시스템의 상호작용 강화형으로의 개선 : 현재의 두불넷 시스템은 터전과 청소년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견의 조율 등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러한 두불넷 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청소년과 터전과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이 수정될 수도 있는 기존보다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형태로 두불넷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아홉 번째,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 수행기구의 체계화 :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 수행기구의 예산, 인력 등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열 번째, 관련 법률의 개정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II. 이론적 논의	9
1.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11
2.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	12
3.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16
1)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 주요 정책현황	16
2)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외국 주요 정책현황	20
III. 연구방법	25
1. 문헌연구	27
2. 콜로키움	27
3. 양적 설문조사	28
4. 질적 면접조사	37
5. 전문가 자문	40
6. 전문가 FGI	40
7. 정책협의회	40
8. 전문가 워크숍	41
9. 이슈브리프 발간	41
IV. 분석결과	43
1. 양적 설문조사 결과분석	45
2. 질적 면접조사 결과분석	62
3. 전문가 FGI 결과분석	75

V. 결론	89
1. 연구의 요약	91
2. 정책적 제언	93
참고문헌	103
부 록	111
부록 1. 한국 청소년의 나눔활동에 대한 대한 조사 설문지	
Abstract	133

표 목차

〈표 IV-1〉 전체 봉사활동 참여실태	46
〈표 IV-2〉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실태	47
〈표 IV-3〉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실태	48
〈표 IV-4〉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49
〈표 IV-5〉 기부 참여실태	50
〈표 IV-6〉 청소년들의 기부에 대한 생각	51
〈표 IV-7〉 나눔활동 참여요인이 나눔활동 참여무유에 미치는 영향	52
〈표 IV-8〉 나눔활동 참여요인이 나눔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영향	54
〈표 IV-9〉 나눔활동 참여요인이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	55
〈표 IV-10〉 나눔활동 참여무유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1	57
〈표 IV-10〉 나눔활동 참여무유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2	58
〈표 IV-11〉 나눔활동 참여횟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1	59
〈표 IV-11〉 나눔활동 참여횟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2	60
〈표 IV-12〉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1	61
〈표 IV-12〉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2	62

그림 목차

【그림 II-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홈페이지	17
【그림 II-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18
【그림 II-3】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	19
【그림 II-4】 영국 Vinspired 홈페이지	21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제 I 장
서론^{1) 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등의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러한 트렌드들은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약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향상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 중에서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향상시키거나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은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활동 관련정책이다.

2009년 수립된 유럽연합의 미래 청소년정책 계획에서는 3가지 정책 아젠다로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 청소년의 참여 확대,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 연대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연대 강화를 위한 하위 정책으로 사회적 포섭 등과 함께 자원봉사를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이경상, 박선영, 조남익, 2014에서 재인용).

한국에서도 이미 1994년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틀을 만들고,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종합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활동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김한구 외, 1997; 여성가족부, 2013). 이후 1996년에서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 들어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1)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이 장의 일부 내용은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이슈브리프 제15호로 발간한 바 있음(이경상, 2015년 10월 30일,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15호-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2009년에 이르러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봉사활동 체험학습이 편제되고 교교 진학과 입학사정관제, 봉사전형 등 대학진학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도화되어 봉사활동이 봉사학습으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크레존넷, 2015.04.15.; 김숙정, 2009).

주지하듯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이타적인 행위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김한구 외, 1997; 정진경, 2012),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이다(박선향, 2010; 구재관 외, 2013; 황여정, 김경근, 2013; 김선숙, 안재진, 2012).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이다(권현수, 2010; 박성복, 김규희, 2008; 박완성, 김기수, 2012; 최항순, 정태자, 2010). 즉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사회공동체성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입시위주 학생 생활문화의 한계, 봉사활동 자발성의 부족,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 봉사동아리 활동의 부족, 봉사활동 전문성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자원봉사 원래의 동기부여하에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형태로 전개되기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 획득을 목적으로 다소 형식적으로 전개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이경상, 2014).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 실시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초중고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제도적으로 봉사활동을 강화하고는 있으나(크레존넷, 2015.04.15.; 김숙정, 2009) 내용상의 뚜렷한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 봉사활동이 봉사학습으로 진행됨으로써 봉사활동 본래의 주요 요소인 자발성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청소년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와 함께 청소년 나눔활동의 다른 한 축인 한국 청소년들의 물질기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물질기부 등이 많이 증가하여 기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나눔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나눔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하면³⁾(보건복지부, 2015), 향후 성장해서 미래

3) 2013년 말 초안으로 작성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에는 나눔 적용대상에 기부 외에 자원봉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2년이 지난 시점인 2015년 말 현재 수정검토 중인 나눔기본법 조정안에는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받

성인기에 한국 시민사회의 기부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아가야 할 한국 청소년들의 기부에 대해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비해 청소년 기부활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청소년들에게 기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사회공동체성의 강화와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청소년 나눔활동의 제도적 지원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청소년들이 나눔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요인, 나눔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부터 살펴보고, 둘째, 국내 청소년 나눔활동의 주요 정책적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외국의 주요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본 다음, 넷째,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양적, 질적 조사를 실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다섯째,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FGI를 실시한 다음, 여섯째,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쳐 청소년 나눔활동의 최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사회공동체성 강화,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고립사회, 개인주의,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는 한국 미래사회의 공동체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2015년 4월)하여 나눔 적용대상에서 자원봉사를 제외하였음(보건복지부, 2015). 따라서 정책적 용어로써 정착 중이던 나눔의 개념이 애초 자원봉사, 기부를 포함하는 큰 개념에서 현재 기부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으로 외연이 축소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판단됨. 향후 수년간에 나눔이라는 정책적 용어의 개념이 어떻게 최종 정착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나눔 개념안에 자원봉사와 기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애초의 연구계획대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을 자원봉사, 기부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음. 이후 나눔 개념의 외연은, 자원봉사, 기부 등 하위 개념의 외연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 수년간의 추이를 봐서 탄력적으로 정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됨.

2. 연구내용

1)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참여요인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이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등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나눔활동의 개념적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개인적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부분에서는 최근에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정책적 용어로 정착되고 있는 나눔활동의 개념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원봉사, 기부 등의 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개념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나눔활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검토부분에서는 개인적 요인, 상황요인 등 청소년들이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참여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개인적 효과부분에서는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가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등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와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리더십 등에 미치는 개인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은 이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양적, 질적인 경험적 조사의 기본적인 토대로써 활용될 것이다.

2)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 주요 정책현황 검토

이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원봉사, 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 정책의 제도적 지원현황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역사적 추진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제도적 지원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 주요 정책적 지원현황에 대한 검토결과는 외국의 주요 나눔활동 관련 정책현황

검토결과와 함께 전문가 FGI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의 유용한 기본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3)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외국 주요 정책현황 검토

이 연구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외국의 주요 정책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할 때는 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청소년 나눔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정책적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의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외국의 주요 정책현황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내 주요 정책현황 검토결과와 함께 전문가 FGI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의 기본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4)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이 연구의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등을 토대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전국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확률표집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선정된 조사대상을 대상으로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적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동아리활동 등이 나눔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물질기부 중 어느 것이 더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질적 면접조사 분석결과와 함께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5)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질적 면접조사

이 연구의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이론적 논의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적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질적 면접조사는 전국을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5대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에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4~6학년)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총 3명씩 전체 청소년 15명을 선발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시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5대 권역에서 청소년 봉사활동 담당교사 1명, 청소년 봉사활동 전문가 1명, 기부활동 전문가 1명 총 3명씩 전체 성인 15명을 선발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고자 한다. 추가로 대학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1명도 면접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질적 면접조사에서도 양적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그리고 동아리활동 등이 나눔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물질기부 등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질적 면접조사 분석결과는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함께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6)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이 연구의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 주요 정책현황에 대한 검토,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주요 외국 정책현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또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효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질적 면접조사 분석결과 등과 함께,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FGI,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문가 FGI,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은 현장,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시할 것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7)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이 연구의 일곱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쳐 타당성이 제고된 청소년 나눔활동의 최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Ⅱ 장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2.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
3.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제Ⅱ 장

이론적 논의⁴⁾

1.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⁵⁾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나눔행위, 나눔활동 등 나눔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정책분야에서도 나눔이란 용어를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전통적으로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오다가, 최근 10여년간 자원봉사와는 다른 의미의 물질기부, 그리고 개념적 외연이 자원봉사와 유사한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Drollinger and Johnson, 1995; 강철희, 2004; 김현나, 2014; 오혜순, 2014; 진무두, 2012) 이들 개념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나눔행위, 나눔활동 등 나눔이란 용어가 점차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⁶⁾.

물론 아직 자원봉사, 재능기부, 물질기부, 나눔 등의 개념과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 학자들간의 간주관적 합의가 명확히 이뤄져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자원봉사, 재능기부라는 용어대신에 재능나눔이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물질기부라는 용어대신에 물질나눔이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용어를 혼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점차적으로 자원봉사(재능기부 포함), 물질기부를 아우르는 용어로 나눔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4) 이 장의 일부 내용은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이슈브리프 제15호로 발간한 바 있음(이경상, 2015년 10월 30일,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15호-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5)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6) 앞의 서론 각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말 초안으로 작성한 나눔기본법 제정안에는 나눔의 개념적 정의에 기부, 자원봉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 말 현재 검토수정한 나눔기본법 조정안에는 2015년 4월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눔의 개념적 정의에서 자원봉사 부분을 제외하여(보건복지부, 2015), 나눔의 개념적 정의가 현재 자원봉사는 제외하고 기부를 중심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음. 나눔기본법의 나눔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정책대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리고 향후 수년간에 어떻게 정착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연구에서는 나눔의 개념이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애초 연구계획서에 제시한대로 나눔의 개념안에 자원봉사와 기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정책적 용어로서의 나눔개념의 외연은 향후 관련 전문가들의 간주관적 합의를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나눔이라는 용어는 학문적 용어는 아니다. 나눔행위에 대한 학문적인 용어는 도움행동(helping behavior)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신현, 2011, 2015). 도움행동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기부 행위처럼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자원봉사(재능기부 포함) 행위처럼 육체적, 지적 도움을 주는 등의 타자의 안녕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전신현, 2011, 2015). 도움행동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대체로 물질기부와 자원봉사(재능기부 포함)를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움행동과 비슷한 용어로 이타적인 행위, 친사회적 행위 등이 쓰이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전신현, 2011, 2015). 최근 학문적 용어인 도움행동이라는 용어대신 나눔행위, 나눔활동 등 나눔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도움행동의 개념이 한 방향으로의 시혜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나눔의 개념은 양 방향의 상호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재능기부 포함), 물질기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향후 수년간에 나눔의 개념이 정책분야, 현장분야, 학계 등에서 논의와 간주관적 합의를 거쳐 어떻게 정착될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지만,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의 하위 핵심개념에 대한 합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나눔 개념의 외연에 대한 정의를 향후 정책분야, 현장분야,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분들의 간주관적 합의를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물질기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개념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둘로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학습이 강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이외에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⁷⁾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청소년 나눔행위, 나눔활동의 참여에

7)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청소년 나눔행위, 나눔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일부 연구가 물질기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나눔행위, 나눔활동 참여의 영향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 상황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다(전신현, 2011, 2015; 김성준, 2003; 박종철, 이용운, 2012; 구지윤, 2013; 이정해, 김현주, 2014; 이수애, 이성태, 2009; 강철희, 유재운, 박소현, 2012).

대체로 개인적 요인은 성, 연령, 교육, 수입, 종교, 참여동기 등의 개인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지칭한다(Drollinger and Johnson, 1995; Chapman, Zahn-Waxler, Cooperman, & Iannotti, 1987; 김성준, 2003; 전신현, 2011, 2015; 황창순, 강철희, 2002; 박태규, 윤병호, 정진욱, 2008; 홍은진, 2006; 구지윤, 2013). 성에 따라 도움행위의 차이가 나타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도움행위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전신현, 2011, 2015; 구지윤, 2013). 또한 나눔활동에 참여했을 때의 손실보다는 보상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타자지향적 감정이입과 배려를 가진 이타적 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남을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개인 규범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남을 돕는 자아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눔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전신현, 2011, 2015).

상황적 요인은 주변인 효과, 도움의 기회, 수혜자의 특성 등과 같은 상황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지칭한다(Brown and Ferris, 2007; 김연, 김정우, 2014; 전신현, 2011, 2015; 이수애, 이성태, 2009; 김연수, 이광석, 2011). 우선 주변인 효과라는 것은 내가 아니어도 주위에 수혜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나눔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움의 기회는 평소에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나눔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혜자의 특성은 도움을 요청하는 수혜자의 도움요청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이수애, 이성태, 2009; 전신현, 2011, 2015; 김연수, 이광석, 2011).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의 특성과 같은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지칭한다(Brown and Ferris, 2007; 전신현, 2011, 2015; 김숙경, 2005). 평소에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나눔활동과 관련된 조직(동아리, 단체, 시설 등)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직에서 내가 중심적 위치에서 활동했는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친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지,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등에 따라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전신현, 2011, 2015; 김숙경, 2005).

그리고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행위, 나눔활동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청소년 나눔행위, 나눔활동에의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물질기부 등에 관심을 갖고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주로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 및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의 효과는 크게 사회적 효과와 개인적 효과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원봉사 등 청소년 나눔활동이 참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는 민주적인 시민성의 강화, 사회정의 및 사회공동체성의 강화,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들 수 있다(Hamilton & Fenzel, 1988; Janoski, Musick, & Wilson, 1998; Scales, Blyth, Berkas, & Kielsmeier, 2000; Metz, McLellan, & Youniss, 2003; 박선향, 2010;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2; 구재관 외, 2013; 원미숙, 박혜숙, 2010; 박혜준, 김윤경, 2010; 황여정, 김경근, 2013; 김선숙, 안재진, 2013; Nenga, 2012; 이경상, 2014).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을 갖추게 되고,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사회적인 소외집단을 경험적으로 접함으로써 사회정의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회공동체성이란게 과연 무엇인가? 등과 같은 사회정의 및 사회공동체성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게 되며, 이후 사회문제를 접할 때마다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정자(2012)는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연계망이 높아지고, 자원봉사 참여기간도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원미숙, 박혜숙(2010)은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시민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우정자, 2012; 원미숙, 박혜숙, 2010; 이경상, 2014).

자원봉사 등 청소년 나눔활동이 참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개인적 영향에는 자아존중감 강화, 자아효능감 강화, 사회성 강화, 진로성숙도 강화, 리더십 개발, 학교생활적응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Johnson, Beebe, Mortimer, & Snyder, 1998; Thoits & Hewitt, 2001; 박성복, 김규희, 2008; 이순자, 2009; 김덕주, 2009; 박완성, 김기수, 2012; 최항순, 정태자, 2010;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박재숙, 2013; 이경상, 2014). 자원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과정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사회성 등이 강화되는 긍정적 경험을

획득하게 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계획, 자원봉사활동 참여과정 등의 수행을 통해 자기와 사회에 대해 더욱 더 많은 사고를 하게 되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진로성숙도가 강화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과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리더십 향상을 경험하게 되며, 자원봉사활동의 여러 체험의 결과 학교생활적응도도 향상되는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성복, 김규희(2008)는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태도는 직접적으로도 혹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순자(2009)는 청소년기의 봉사활동 참여는 참여의식, 성취감 등을 통해 개인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사회적 대인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을 통해 사회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김덕주(2009)는 청소년기의 봉사활동 참여가 타인과의 협력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박완성, 김기수(2012)는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주고 있다. 최항순, 정태자(2010)는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더 개발된다고 나타내고 있다. 박재숙(2013)은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을 매개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박성복, 김규희, 2008; 이순자, 2009; 김덕주, 2009; 박완성, 김기수, 2012; 최항순, 정태자, 2010; 박재숙, 2013; 이경상, 2014).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에 대한 일부 연구결과들을 제외하면, 주로 나눔활동의 한 축인 기부활동보다는 다른 축인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를 전국적인 확률표집의 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한편으로, 기존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왔던 청소년들의 물질기부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관심을 가져왔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둘로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학교 봉사학습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경험적 연구의 측면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이러한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이 연구에서

실시한 양적, 질적인 경험적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입시위주 학생 생활문화의 한계로 인한 봉사활동 자발성의 부족, 봉사활동 교육의 부족,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부족, 봉사활동 전문성의 부족, 기부활동의 제도화 문제 등(이경상, 2014) 기존 청소년 나눔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3.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1)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 주요 정책현황⁸⁾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 정책은 물질기부보다는 자원봉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물질기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자원봉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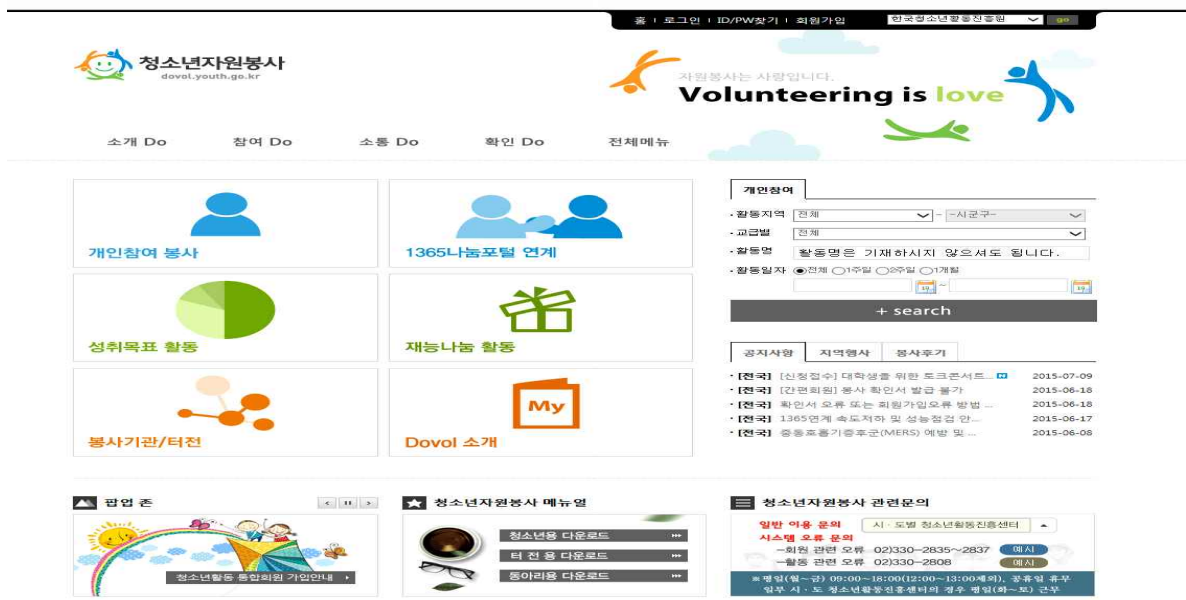
한국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은, 1994년 자원봉사지원법의 제정 발표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차에,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김한구 외, 1997; 여성가족부, 2013; 이경상, 2014).

이후 2009년부터 교육부 2009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봉사활동 체험학습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9 교육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에서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체험학습을 더욱 강화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크레존넷, 2015.04.15.; 김숙정, 2009; 김영채, 2010; 이경상, 2014).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교과중심의 수업 외에 체험학습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지칭하고, 자율활동(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등), 동아리활동(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봉사활동(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 진로활동(자기이해활동,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의 4개 하위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봉사활동 체험학습인 것이다(크레존넷, 2015.04.15.; 김숙정, 2009; 김영채, 2010; 이경상, 2014).

8)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현재 이러한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나눔정책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보건복지부, 2013; 안전행정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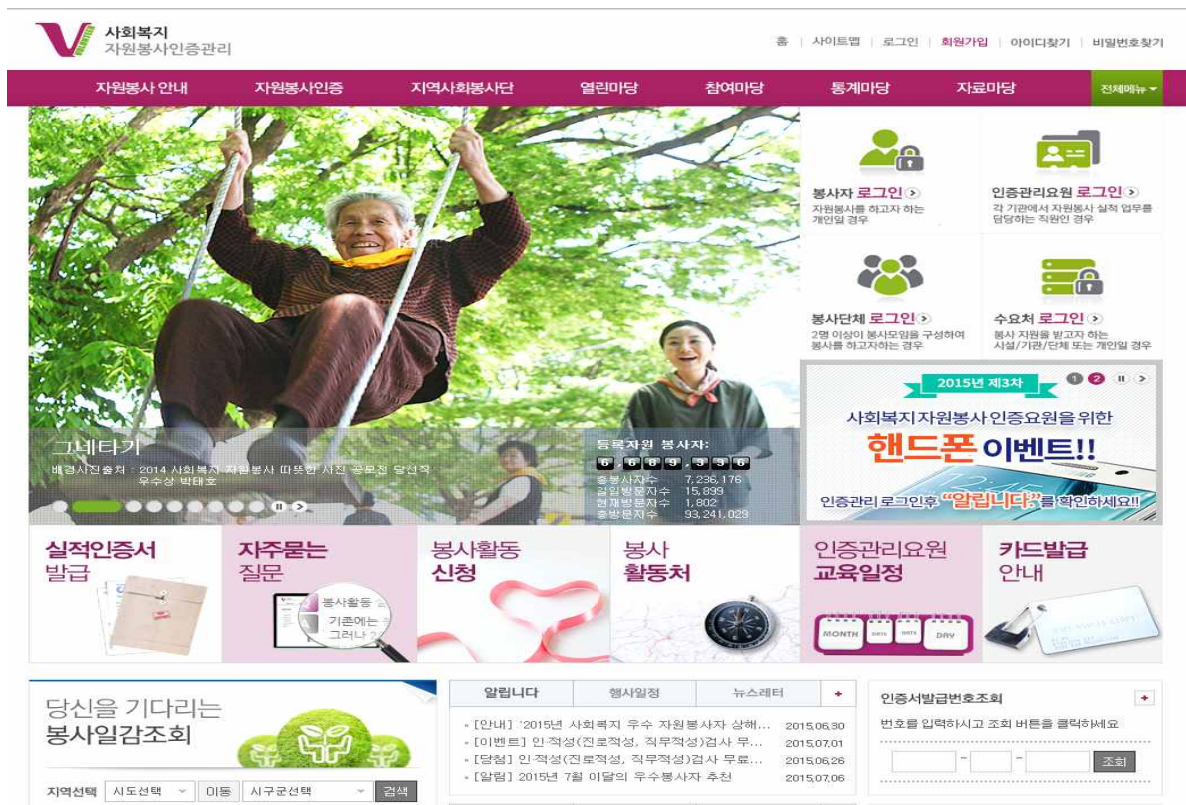
우선 여성가족부는 1995년 청소년 봉사활동이 청소년정책으로 시행되면서부터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원해왔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정책적으로 시행된 직후인 1996년에서 1999년까지 3개년 동안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중앙 및 16개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진작을 지역사회에서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전국에 걸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후 7년 정도 업무를 지속하다가, 2006년에 이르러 청소년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청소년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진흥원(중앙)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전국 16개시도)로 개편되었다. 2006년이후 전국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중앙의 청소년활동진흥원과 16개시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업무를 맡아 지원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3).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들이 봉사터전을 쉽게 검색하여 찾고 등록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07.03.)



【그림 II-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홈페이지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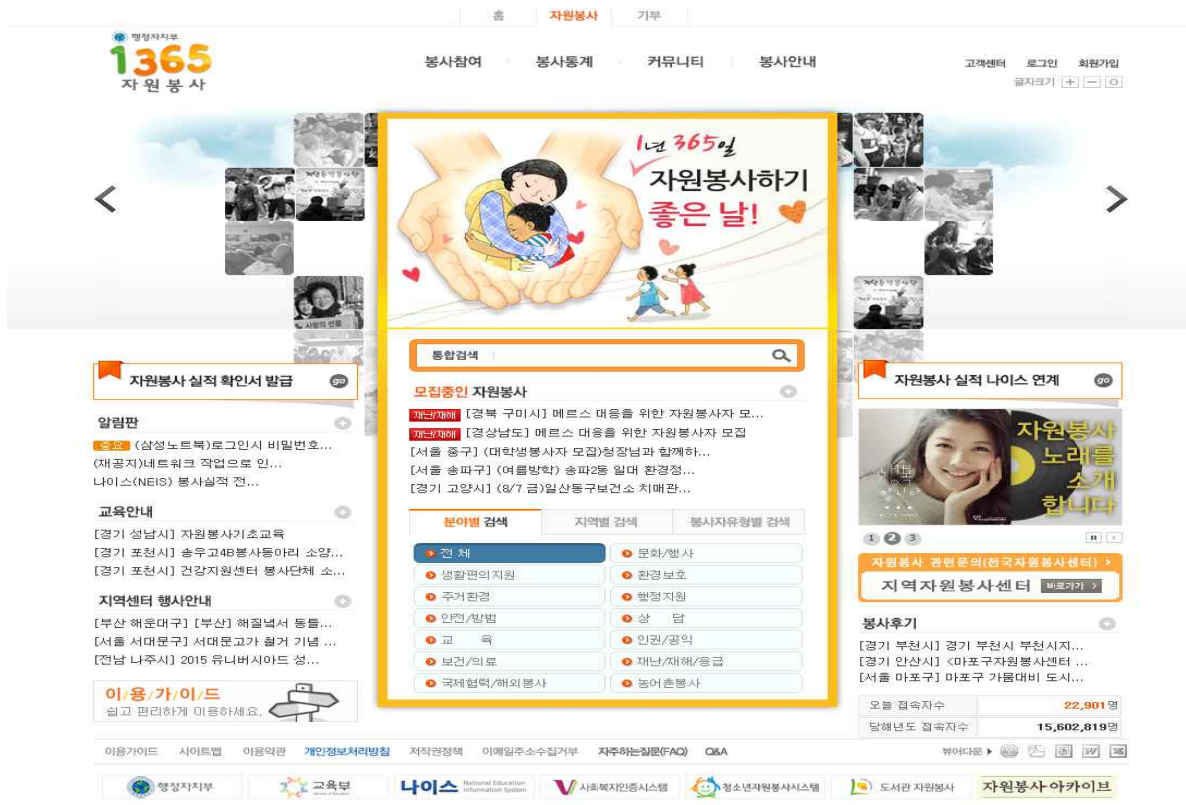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스템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2001년부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VMS)을 구축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 2015.07.03).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는 2013년 12월 현재 전국에 걸쳐 10,724개소에 설치되어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그림 II-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07.03.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1365자원봉사포털을 구축하고,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행정자치부, 2015.07.03). 자원봉사센터는 2013년 현재 전국 246개 지역에 걸쳐 설치되어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해오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그림 II-3】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

*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03.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이와 같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 단계로 이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원봉사포털사이트인 두볼넷,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인 VMS,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에 접속하여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자신의 조건 등에 맞는 봉사활동을 검색하게 되고, 검색을 통해 선정한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봉사활동계획서를 학교 선생님께 제출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봉사활동이 끝난 지 열흘이내에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백은영, 201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05.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07.03.; 보건복지부, 2015.07.03.; 행정자치부, 2015.07.03.; 이경상, 2014). 이후 그 수행결과를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인 에듀팟(edupot)에 기록해두면 선생님들이 확인 후 인정해주게 되며, 상급학교 진학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크레존넷, 2015.04.15.; 이경상, 2014).

한편 현재까지 청소년 물질기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화 및 정책적 지원은 수행되어 오고 있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도 봉사학습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을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수행해 왔으나 물질기부에 대해서는 정책화를 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정책 담당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나눔정책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에서도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수행해왔으나 청소년들의 물질기부에 대해서는 정책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3; 보건복지부, 2013; 안전행정부, 2013).

2)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외국 주요 정책현황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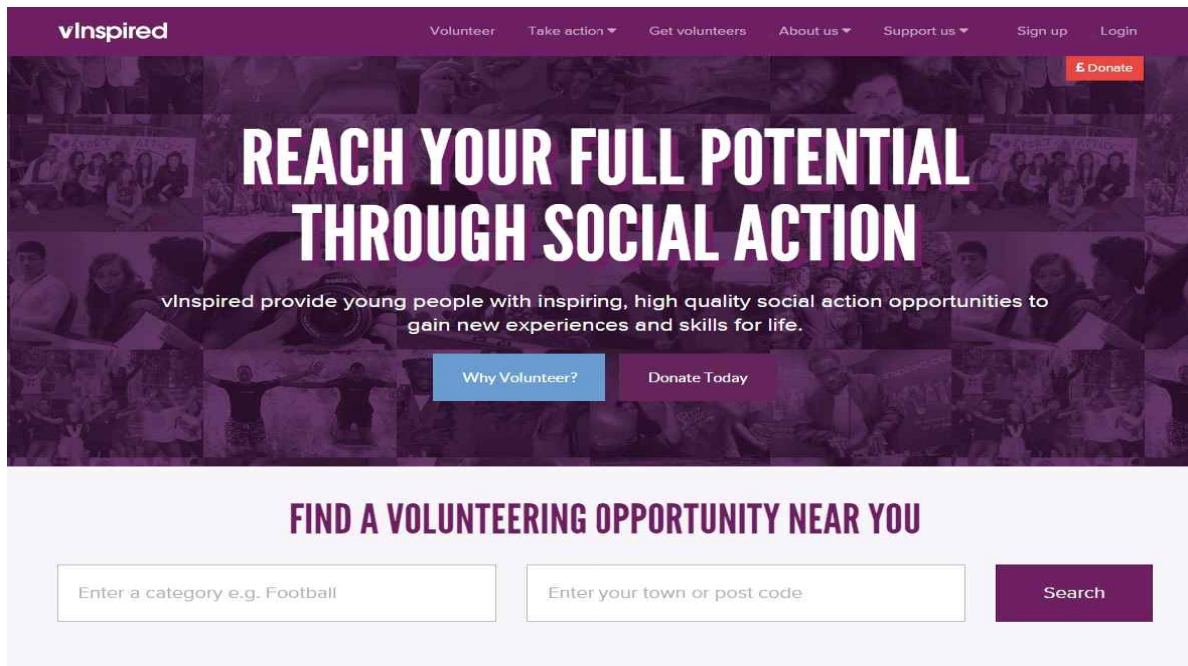
외국의 주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외국의 주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지역사회에서의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동기를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의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3대 국가봉사단인 AmeriCorps, SeniorCorps, Learn&Serve 중 'Learn&Serve' 봉사단에서 운영중인 'Learn and Service America' 프로그램(박세경, 2010;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2015.11.03.)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청소년들이 먼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앞에서 진행과정에 대한 체험결과를 발표하고 해결과정에 대해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스스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의 기회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기성장, 시민의식, 사회성 발달의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박세경, 2010;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2015.11.03.).

영국의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시스템인 영국의 'Vinspired' 시스템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원하는 주소지와 활동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바로 검색가능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봉사활동과정에서 얻은 사진 등 자료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성하여 활용하

9) 이 부분은 조용하 교수(동아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게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Vinspired, 2015.11.03.).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후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여러 여건을 개선할 수도 있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Vinspired, 2015.11.03.).



【그림 II-4】 영국 vinspired 홈페이지

* 출처 : Vinspired, 2015.11.03.

다음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청소년 동기 강화방식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이 자원봉사를 한 경우 대학진학시에 500달러의 학비를 지급하고, 대학생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는 최대 5,35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정도에 따라 학비, 장학금,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박세경, 2010;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2015.11.03.).

영국의 경우에는 ‘V Award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시스템인 ‘vinspired’에 청소년들이 활동 사진과 자료 등을 게시하면, 이들 게재물에 대한 심사를 통해 포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Vinspired, 2015.11.03.). 게재물에 대한 심사기준은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계획단계와 진행과정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봉사활동 진행과정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자신과 타인, 사회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의 청소년들은 50시간, 100시간 등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Vinspired, 2015.11.03.).

외국에는 청소년들의 나눔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나눔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Arizona 주 Tucson의 Tortolita Middle School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부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먼저 학교에서 기부문화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이후 지역사회의 비영리조직에서 기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a;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United Way of Tuscon and Southern Arizona, 2015.11.03.).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부문화전문가 혹은 교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지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한 후, 이후 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a;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United Way of Tuscon and Southern Arizona, 2015.11.03.).

또 다른 예로 미국의 The Women’s Foundation of Southern Arizona에서는 ‘Unidas Youth program(UYP) - Girls Philanthropy Program’ 라는 청소년 기부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Southern Arizona의 여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지역사회 기부자로서의 경험을 쌓게 해서, 지역사회의 기부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a;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Women’s Foundation of Southern Arizona, 2015.11.03.).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지급받은 재원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변화를 위한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당 비영리조직 지원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의 변화에 참여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기부문화를 주도하는 기부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a; 청소년정

책분석평가센터, 2014b; Women's Foundation of Southern Arizona, 2015.11.03.).

한편 청소년 기부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온라인을 통한 기부가 활성화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Network for good'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의 규모를 막론하고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Network for good, 2015.11.03.). 이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기부자가 손쉽게 기부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게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기부프로그램인 'Bmycharity'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영국의 대표적 온라인 모금 웹사이트로, 개인이나 기부단체가 모금을 위한 페이지를 개설하여 수수료 없이 모금을 할 수 있고, 기부자도 이를 통해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Bmycharity, 2015.11.03.).

제 III 장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콜로키움
3. 양적 설문조사
4. 질적 면접조사
5. 전문가 자문
6. 전문가 FGI
7. 정책협의회
8. 전문가 워크숍
9. 이슈브리프 발간

제 III 장 연구방법¹⁰⁾

1. 문헌연구

우선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 국내외 문헌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눔활동의 개념에 해당되는 도움행위의 개념과 관련된 문헌자료, 나눔활동의 참여요인으로써의 개인적, 상황적, 사회적 요인에 관련된 문헌자료, 나눔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문헌자료 등을 차례로 분석,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부분의 문헌자료 분석은 청소년들의 나눔활동에 관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면접조사 구성의 바탕이 되었다.

이어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현황 등 국내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문헌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외국의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외 주요 정책현황에 대한 문헌자료 검토결과는 전문가 FGI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 탐색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콜로키움

이 연구의 주제인 나눔행위, 나눔활동의 학술적 개념인 도움행위의 개념 및 원인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관심있는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원내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움행동의 이해에 대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콜로키움은 2015년 2월 9일(월) 오후 2시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층 중회의실에서 도움행동에 대한 전문가인 고려사이버대 청소년학과

10)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전신현 교수님을 모시고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의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 내용은 이 연구의 세부적인 구성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발표일시 : 2015년 2월 9일(월) 14시~15시 30분
- 발 표 자 : 전신현 교수(고려사이버대 청소년학과)
- 발표주제 :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
- 발표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층 중회의실

3. 양적 설문조사

앞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앞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본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양적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2015년 5월 조사시점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이들 조사모집단을 대상으로 2014년 한국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목표표본수를 6,000명으로 상정한 다음 PPS방식의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강현철, 2015).

조사는 2015년 5월~7월 사이에 조사면접원들이 약속된 일시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self reported)식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조사현장에서의 에디팅과 조사후의 에디팅 과정을 거쳐 조사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나눔활동의 실태,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나눔활동의 효과를 측정하는 세 부분으로 나뉘 구성되었다.

나눔활동의 실태를 묻는 부분은 나눔활동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외에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기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 구성하였다. 이 중 봉사활동 부분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유형화한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나뉘 각각 참여횟수, 참여시간, 주된 참여형태,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기부 부분은 현금기부, 현물기부, 포인트기부로 나뉘 각각

참여여부, 참여횟수, 주된 참여형태,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나눔활동의 참여요인을 묻는 부분은 앞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배경변수 이외에, 이기적 동기, 이타적 동기, 개인규범, 자아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고, 상황적 요인으로 주변인 효과, 도움의 기회, 수혜자의 특성을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요인으로 나눔활동관련 조직 소속여부, 그 조직에서의 나의 위치, 조직구성원들간의 친밀성, 상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의미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신현, 2011, 2015). 나눔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척도는 현재 전신현(2011, 2015)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가 한국에서 유일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전신현, 2011, 2015).

먼저 이기적 동기는 다음의 7문항으로 측정되었다(전신현, 2011, 2015).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시간과 노력 부담, 주위로부터의 칭찬과 좋은 평판, 나 자신의 뿌듯함과 즐거움, 돕지 않을 때의 자신의 죄책감, 돕지 않을 때의 주위로부터의 비난 등 청소년들의 상황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	남을 도울 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될 것 같다
2)	남을 도울 때 돈 등 여러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다
3)	남을 도우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평판이 좋아질 것이다
4)	남을 도우면 나 자신이 뿌듯함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5)	남을 도우면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다
6)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을 때 죄책감이 들 것 같다
7)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을 때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다

출처 : 전신현, 2011, 2015.

다음으로 이타적 동기는 다음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전신현, 2011, 2015).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세 문항을 모두 합한 후 3으로 나눔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alpha = .856$).

1)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가 그런 것과 같이 가슴이 아프다
2)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3)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출처 : 전신현, 2011, 2015.

개인규범은 다음의 1문항으로 측정되었다(전신현, 2011, 2015).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출처 : 전신현, 2011, 2015.

자아정체성은 다음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전신현, 2015).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세 문항을 모두 합한 후 3으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alpha = .828$).

1)	남을 돕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2)	나에게는 남을 돕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중요하다
3)	남을 돕는 것은 단순히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출처 : 전신현, 2015.

상황적 요인은 다음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전신현, 2011).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세 문항을 각각 주변인 인지, 도움 기회, 수혜자에 대한 신뢰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	내가 아니어도 내가 아는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2)	나는 평소에 남을 도울 기회가 많은 편이다
3)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힘들다

출처 : 전신현, 2011.

사회적 요인은 다음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전신현, 2011).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네 문항을 모두 합한 후 4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alpha = .844$).

1)	나는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2)	내가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
3)	내가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의 구성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4)	내가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처 : 전신현, 2011.

나눔활동의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은 역시 앞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나눔활동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였고, 나눔활동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다문화수용도, 사회공동체성 문항을 구성하였다(Rogenberg, 1965,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김광일 외, 1984,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조봉환 외, 2003,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이경상 외, 2003; 이경상 외, 2012; Crits, 1978, 김현옥, 1989, 윤지윤, 2010, 박관숙, 2012에서 재인용; Wingenbach, 1995, Dormody & Seevers, 1995, 최창욱, 2001에서 재인용; 민병수, 1991,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양계민, 정진경, 2008,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김동배, 조학래, 1996).

먼저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1965)가 만든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에서 번역한 것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II(이경상 외, 2012)에서 인용한 것을 사용하였다(Rogenberg, 1965,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10문항 중 역코딩할 문항을 역코딩하여 10문항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문항수인 10으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α =.860).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역코딩)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역코딩)
7)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역코딩)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역코딩)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출처 : Rogenberg, 1965,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우울 척도는 김광일 외 (1984)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II(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김광일 외, 1984,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10문항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문항수인 10으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alpha = .911$).

1)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2)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3)	나는 걱정이 많다
4)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나는 울기를 잘한다
6)	나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7)	나는 외롭다
8)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9)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0)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

출처 : 김광일 외, 1984,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공격성 척도는 조봉환 외(2003)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I(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조봉환 외, 2003,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6문항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문항수인 6으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Chronbach's $\alpha = .847$).

1)	나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2)	나는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3)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4)	나는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5)	나는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6)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출처 : 조봉환 외, 2003,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진로성숙은 Crits(1978)가 제작하고 김현옥(1989)이 번안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를 윤지윤(2010)이 선별하여 사용한 것을, 직업체험과 자기발견의 두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박관숙(2012)의 연구를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Crits, 1978, 김현옥, 1989, 윤지윤, 2010, 박관숙, 2012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13문항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문항수인 13으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alpha = .916$).

1)	나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나만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다
3)	나는 남보다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4)	나는 학교 공부 외에 원하는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활동을 하고 있다
5)	나는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6)	나는 동아리 활동이나 개인적 활동을 통해 적성을 발견하고 있다
7)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학교 밖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	나는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9)	나는 나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체험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
10)	나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1)	나는 학교 친구 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2)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이다
13)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출처 : Crits, 1978, 김현옥, 1989, 윤지윤, 2010, 박관숙, 2012에서 재인용

리더십 척도는 Wingenbach(1995), Dormody & Seevers(1995) 등이 사용한 리더십생활기술 척도를 바탕으로 최창욱(2001)이 사용한 27개 문항을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Wingenbach, 1995, Dormody & Seevers, 1995, 최창욱, 2001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27문항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문항수인 27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alpha = .964$).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2)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편이다
3)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5)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7)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8)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이다
10)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12)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14)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16)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17)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8)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19)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0)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21)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2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23)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24)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25)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26)	나는 내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을 잘 수용한다
27)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출처 : Wingenbach, 1995, Dormody & Seevers, 1995, 최창욱, 2001에서 재인용

학교생활적응은 민병수(1991)가 만든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II(이경상 외, 2012)의 척도를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민병수, 1991,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20문항 중 역코딩할 문항을 역코딩하여 20문항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문항수인 20으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α =.907).

1)	나는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다
2)	나는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5)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역코딩)
6)	나는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7)	나는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8)	나는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9)	나는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10)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11)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2)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3)	나는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14)	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역코딩)
15)	나는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16)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7)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8)	나는 학교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19)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20)	나는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출처 : 민병수, 1991,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다문화수용 척도는 양계민, 정진경(2008)의 다문화수용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II(이경상 외, 2012)에서 사용한 척도를 재인용하였다(양계민, 정진경, 2008,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5문항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문항수인 5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alpha = .892$).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귄다
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출처 : 양계민, 정진경, 2008,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사회공동체성 척도는 김동배와 조학래(1996)가 이타성에 관한 10개 문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사용한 것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김동배, 조학래, 1996).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 20문항 중 역코딩할 문항을 역코딩하여 20문항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문항수인 20으로 나눈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hronbach's $\alpha = .731$).

1)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역코딩)
2)	일반적으로 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적극적이다
3)	이재민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그들과 함께 살겠다.
4)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역코딩)
5)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
6)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역코딩)
7)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8)	나는 사실 내심으로는 남을 돕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역코딩)
9)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 앞에 노약자가 서 있다면, 나는 몸이 피곤하여도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10)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다(역코딩)

11)	청소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보지 않는 곳은 대충 해버린다(역코딩)
12)	나는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거나 환경정리와 같은 특별한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3)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역코딩)
14)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
15)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역코딩)
16)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소속된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기아에 처한 소말리아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역코딩)
18)	우리 집 주위에 장애인 시설이 생긴다해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
19)	불우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역코딩)
20)	나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나에게 없다(역코딩)

출처 : 김동배, 조학래, 1996.

최종 수집된 자료는 비표집오차를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딩, 더블 편칭, 데이터 검수의 과정을 거쳐 정리되었다. 그리고 최종 정리된 데이터에는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크기와 동일하게 만든 표준화가중치를 부여하였다(강현철, 2015). 그리고 분석시에는 이 표분화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표준화가중치를 부여한 분석결과이다.

4. 질적 면접조사

질적 면접조사는 나눔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나눔활동과 관련된 성인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대상의 면접조사는 전국에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면접대상자 15명의 선발은 우선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의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각각의 권역에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명씩 총 15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다. 면접내용 및 방법은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 등의 내용으로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면접대상자 15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학교	봉사활동 경험	기부 경험
1	김○○	여	13	강원	○○○초등학교	있음	있음
2	박○○	여	15	강원	○○○○중학교	있음	있음
3	박△△	여	18	강원	○○○○고등학교	있음	있음
4	김△△	남	11	경상	○○초등학교	있음	있음
5	정○○	여	14	경상	○○○○중학교	있음	있음
6	서○○	남	18	경상	○○고등학교	있음	있음
7	안○○	남	13	서울 경기	○○초등학교	있음	있음
8	이○○	여	15	서울 경기	○○중학교	있음	있음
9	고○○	여	17	서울 경기	○○○○고등학교	있음	있음
10	이△△	여	13	전라	○○초등학교	있음	있음
11	이□□	여	16	전라	○○중학교	있음	있음
12	김□□	남	18	전라	○○○○고등학교	있음	없음
13	이◇◇	여	12	충남	○○초등학교	있음	있음
14	이××	여	15	충남	○○중학교	있음	있음
15	김◇◇	여	19	충남	○○○○고등학교	있음	있음

성인대상의 면접조사는 전국에서 청소년 봉사활동, 기부활동과 관련된 성인 전문가 15명과 대학입학사정관 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성인 면접대상자 15명의 선발도 역시 청소년의 선발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의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각각의 권역에서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활동 전문가, 기부활동 전문가 1명씩 총 15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교수 1명을 추가로 선발하였다. 면접내용 및 방법 역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 등의 내용으로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선발된 성인 전문가 15명과 대학입학사정관 1명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 번	이름	성 별	나이	거주 지역	직장	비고
1	김○○	남	57	강원	○○○○고등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2	이○○	남	36	강원	○○○청소년활 동진흥센터	봉사활동 전문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3	김△△	남	30	강원	굿네이버스 ○○본부	기부활동 전문가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4	이△△	여	45	경상	○○중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5	조○○	남	45	경상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봉사활동 전문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6	이□□	남	31	경상	세이브더칠드런 ○○지부	기부활동 전문가 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7	정○○	여	24	서울 경기	○○○중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8	김□□	남	46	서울 경기	○○○○	기부활동 전문가 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9	채○○	남	35	서울 경기	○○○○운동본 부	나눔교육 전문가
10	김××	여	47	전라	○○○○중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1	김◇◇	남	53	전라	○○자원봉사센 터	봉사활동 전문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2	김●●	여	44	전라	○○사회복지공 동모금회	기부활동 전문가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3	박○○	남	51	충청	○○○○고등학 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4	신○○	여	24	충청	○○○청소년수 련관	봉사활동 전문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5	김■	남	31	충청	굿네이버스 ○○본부	기부활동 전문가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6	이◇◇	남	57	전라	○○대학교	입학사정관

5. 전문가 자문

자원봉사, 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거쳐 구성된 설문지 구성안에 대해 학계, 현장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6. 전문가 FGI

앞에서 살펴 본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 주요 정책현황, 국외 주요 정책현황을 바탕으로, 그리고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질적 면접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6인의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가, 청소년 기부 전문가, 청소년 자원봉사, 기부활동 담당관련 교사분들을 모시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FGI를 통해 개진된 의견은 최종 정책제언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7. 정책협의회

우선 실행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연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 1차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진된 의견은 전체 실행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내용을 가다듬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제 2차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진된 의견은 최종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다.

8. 전문가 워크숍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 질적 면접조사 분석결과, 전문가FGI 분석결과와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정책, 현장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최종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9. 이슈브리프 발간

이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쟁점에 대해 공유하고 확산할 목적으로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15호를 기발간하고(이경상, 2015.10.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제 IV 장

분석 결과

1. 양적 설문조사 결과분석
2. 질적 면접조사 결과분석
3. 전문가 FGI 결과분석

제Ⅳ장 분석결과¹¹⁾

1. 양적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실태

우선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를 전체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기부활동으로 나눠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따라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측정하였다. 기부활동은 지식이나 육체적 능력 기부는 제외하고 재산기부를 현금기부, 현물기부, 포인트기부로 세부적으로 나눠 측정하였다. 단, 절, 교회, 성당 등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기부는 제외하였다.

<표 IV-1>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과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모두를 합친 전체 청소년 봉사활동의 참여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83.9%가 지난 1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0명 중 8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의 대다수가 지난 1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청소년 봉사활동의 제도화가 전반적으로 많이 정착된 결과로 해석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87.2%, 남자가 80.9%로 여자청소년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6.1%, 하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3.9%,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1.9%의 순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의 종교무유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1)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V-1 전체 봉사활동 참여실태(빈도, %)

구분		참여 무	참여 유	합계	χ^2
전체		1134(16.1)	5913(83.9)	7047(100)	
성별	여자	432(12.8)	2941(87.2)	3373(100)	51.686***
	남자	702(19.1)	2972(80.9)	3674(100)	
교급	초	308(15.6)	1671(84.4)	1979(100)	5.296
	중	370(15.1)	2078(84.9)	2448(100)	
	고	455(17.4)	2165(82.6)	2620(100)	
종교	무	640(16.5)	3245(83.5)	3885(100)	1.286
	유	476(15.5)	2601(84.5)	3077(100)	
경제 수준	상	419(13.9)	2598(86.1)	3017(100)	19.978***
	중	554(18.1)	2508(81.9)	3062(100)	
	하	149(16.1)	777(83.9)	926(100)	

*p < .05, **p < .01, ***p < .001

이어 청소년들의 전체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과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표 IV-2>는 청소년들의 전체 봉사활동 중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78.1%가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청소년들의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제도화된 봉사학습의 경험을 체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81.1%, 남자가 75.3%로 여자청소년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82.2%, 중학생이 77.7%, 고등학생이 75.4%로 나타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0.6%, 하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76.7%,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76.1%의 순으로 학교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무유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실태(빈도, %)

구분		참여 무	참여 유	합계	χ^2
전체		1545(21.9)	5503(78.1)	7048(100)	
성별	여자	639(18.9)	2734(81.1)	3373(100)	33.485***
	남자	906(24.7)	2769(75.3)	3675(100)	
교급	초	353(17.8)	1626(82.2)	1979(100)	30.640***
	중	546(22.3)	1902(77.7)	2448(100)	
	고	645(24.6)	1975(75.4)	2620(100)	
종교	무	857(22.1)	3028(77.9)	3885(100)	0.141
	유	667(21.7)	2409(78.3)	3076(100)	
경제 수준	상	584(19.4)	2434(80.6)	3018(100)	20.021***
	중	733(23.9)	2329(76.1)	3062(100)	
	하	216(23.3)	710(76.7)	926(100)	

*p < .05, **p < .01, ***p < .001

<표 IV-3>은 청소년들의 전체 봉사활동 중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45.1%가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외에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10명 중 5명 가까이가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비율에 비하면 많이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비율은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게 나타나고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49.7%, 남자가 40.9%로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역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3.7%, 중학생이 48.6%, 고등학생이 50.5%로 나타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과는 반대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무유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실태(빈도, %)

구분		참여 무	참여 유	합계	χ^2
전체		3869(54.9)	3179(45.1)	7048(100)	
성별	여자	1698(50.3)	1676(49.7)	3374(100)	54.717***
	남자	2172(59.1)	1503(40.9)	3675(100)	
교급	초	1313(66.3)	666(33.7)	1979(100)	147.294***
	중	1258(51.4)	1190(48.6)	2448(100)	
	고	1298(49.5)	1322(50.5)	2620(100)	
종교	무	2166(55.8)	1718(44.2)	3884(100)	3.481
	유	1647(53.5)	1430(46.5)	3077(100)	
경제 수준	상	1638(54.3)	1380(45.7)	3018(100)	5.047
	중	1721(56.2)	1343(43.8)	3064(100)	
	하	484(52.3)	442(47.7)	926(100)	

*p < .05, **p < .01, ***p < .001

<표 IV-4>는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과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등 전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봉사활동 참여에 대해 지금보다 많고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39.2%인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34.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진로(인식, 탐색, 준비)와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6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봉사활동 참여전 사전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27.5%인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1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기관 지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13.8%인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활동 참여후 사후평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빈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봉사활동 참여에 대해 지금보다 많고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	513 (8.7)	822 (13.9)	2455 (41.6)	1455 (24.7)	657 (11.1)	5902 (100)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442 (7.5)	969 (16.4)	2514 (42.6)	1589 (26.9)	388 (6.6)	5902 (100)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539 (9.1)	1135 (19.2)	2135 (36.2)	1525 (25.9)	564 (9.6)	5897 (100)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541 (9.2)	1003 (17.0)	2039 (34.6)	1653 (28.1)	657 (11.1)	5893 (100)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다	417 (7.1)	841 (14.3)	2589 (43.9)	1493 (25.3)	556 (9.4)	5896 (100)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진로(인식, 탐색, 준비)와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186 (3.2)	302 (5.1)	1822 (30.9)	2025 (34.3)	1567 (26.5)	5901 (100)
봉사활동 참여 전 사전교육이 부족하다	523 (8.9)	1190 (20.2)	2562 (43.4)	1252 (21.2)	372 (6.3)	5899 (100)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829 (14.1)	1454 (24.7)	2566 (43.6)	747 (12.7)	296 (5.0)	5892 (100)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기관 지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882 (14.9)	1605 (27.2)	2599 (44.1)	593 (10.1)	220 (3.7)	5899 (100)
봉사활동 참여 후 사후평가가 부족하다	652 (11.1)	1223 (20.7)	2889 (49.0)	864 (14.7)	265 (4.5)	5892 (100)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398 (6.7)	592 (10.0)	3044 (51.6)	1283 (21.7)	584 (9.9)	5901 (100)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기부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IV-5>는 현금기부, 현물기부, 포인트 기부 등 청소년들의 기부활동에 참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51.8%가 지난 1년간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10명 중 과반인 5명을 넘는 청소년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들의 정책 대상에서 등한시되었던 기부활동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59.1%, 남자가 45.1%로 역시 여자청소년이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68.0%, 중학생이 42.5%, 고등학생이 48.5%의 참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무유별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55.9%,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이 48.9%의 비율로 나타나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의 참여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58.5%,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6.8%, 하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6.5%의 순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기부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기부 참여실태(빈도, %)

구분		참여 무	참여 유	합계	χ^2
전체		3396(48.2)	3650(51.8)	7046(100)	
성별	여자	1382(40.9)	1993(59.1)	3375(100)	136.610***
	남자	2015(54.9)	1657(45.1)	3672(100)	
교급	초	634(32.0)	1346(68.0)	1980(100)	305.451***
	중	1405(57.5)	1039(42.5)	2444(100)	
	고	1357(51.8)	1264(48.2)	2621(100)	
종교	무	1986(51.1)	1898(48.9)	3884(100)	33.548***
	유	1358(44.1)	1718(55.9)	3076(100)	
경제 수준	상	1250(41.5)	1765(58.5)	3015(100)	96.379***
	중	1631(53.2)	1432(46.8)	3063(100)	
	하	495(53.5)	431(46.5)	926(100)	

*p < .05, **p < .01, ***p < .001

<표 IV-6>은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부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기부활동 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청소년들의 기부에 대한 생각 (빈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기부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712 (10.2)	1099 (15.7)	3197 (45.8)	1570 (22.5)	405 (5.8)	6983 (100)
참여할 수 있는 기부활동 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703 (10.1)	1066 (15.3)	3051 (43.8)	1620 (23.2)	531 (7.6)	6972 (100)

2)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요인

다음으로 앞의 이론적 논의를 따라 개인적 요인(남성더미, 학년, 종교무유더미, 주관적 경제수준, 이기적 동기(시간노력 손실, 주위칭찬, 나의 즐거움, 나의 죄책감, 주위비난), 이타적 동기, 개인규범, 자아정체성, 상황적 요인(주변인 인지, 도움기회, 수혜자에 대한 신뢰), 사회적 요인(도움조직사회자본)이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참여무유,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참여횟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IV-7>은 나눔활동 참여요인들이 전체봉사활동 참여무유,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무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 기부활동 참여무유 등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무유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전체 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부터 살펴보면,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인규범이 강할수록 전체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주위의 칭찬이나 좋은 평판을 인식할수록, 남성일수록 전체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감정이입에 의한 이타적 동기가 강할수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학년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전체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나눔활동 참여요인이 나눔활동 참여무유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기부	
	B	Exp(B)	B	Exp(B)	B	Exp(B)	B	Exp(B)
남성더미	-0.360	0.698***	-0.251	0.778***	-0.272	0.762***	-0.474	0.622***
학년	0.003	1.003	-0.045	0.956***	0.121	1.129***	-0.126	0.882***
종교무유더미	-0.029	0.972	-0.074	0.929	0.043	1.044	0.136	1.145**
경제수준	0.040	1.041	0.041	1.042	0.011	1.011	0.102	1.108***
시간노력손실	0.028	1.028	0.020	1.020	-0.022	0.978	0.010	1.010
주위칭찬	-0.098	0.906*	-0.029	0.971	-0.088	0.915**	-0.049	0.952
나익즐거움	0.214	1.238***	0.150	1.161***	0.134	1.143***	0.168	1.182***
나익죄책감	-0.030	0.971	-0.057	0.944	0.020	1.020	0.040	1.041
주위비난	-0.013	0.987	-0.040	0.961	0.003	1.003	-0.078	0.925**
이타적동기	0.055	1.057	0.124	1.132*	-0.016	0.984	0.100	1.105*
개인규범	0.153	1.165**	0.032	1.032	0.125	1.133**	0.163	1.177***
자아정체성	-0.098	0.907	-0.073	0.930	0.038	1.039	0.049	1.050
주변인인지	0.045	1.046	0.063	1.065	0.011	1.011	-0.089	0.915**
도움기회	0.024	1.024	0.024	1.024	0.077	1.080**	0.056	1.058
신뢰	-0.047	0.955	-0.061	0.941	-0.060	0.942*	-0.090	0.914**
도움조직 사회자본	0.281	1.324***	0.202	1.223***	0.218	1.244***	0.158	1.172***
상수항	0.384	1.469	0.597	1.817*	-1.954	0.142***	-0.968	0.380***
-2 Log우도	5247.260		6982.721		8962.834		8818.324	
Cox와 Snell의 R ²	0.040		0.033		0.071		0.097	
Nagelkerke R ²	0.069		0.050		0.095		0.129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눔활동 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인규범이 강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남을 도울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록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수혜자를 신뢰하기 힘들수록, 주위의 칭찬이나 좋은 평판을 인식할수록, 남성일수록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부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인규범이 강할수록,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감정이입에 의한 이타적 동기가 강할수록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남성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수혜자를 신뢰하기 힘들수록, 내가 아니어도 주변사람들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주위의 비난을 인식할수록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게 나타났다.

<표 IV-8>은 나눔활동 참여요인들이 전체봉사활동 참여횟수,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활동 참여횟수 등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전체 봉사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부터 살펴보면,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남을 도울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록, 감정이입에 의한 이타적 동기가 강할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봉사활동 참여횟수가 높게 나타나고, 주위의 비난을 인식할수록, 수혜자를 신뢰하기 힘들수록, 남성일수록 전체 봉사활동 참여횟수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감정이입에 의한 이타적 동기가 강할수록, 남을 도울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록, 내가 아니어도 주변사람들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가 높게 나타나고, 주위의 비난을 인식할수록, 수혜자를 신뢰하기 힘들수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남을 도울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나고, 남성일수록, 수혜자를 신뢰하기 힘들수록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부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남을 도울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인규범이 강할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남을 돕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낄수록 기부활동 참여횟수가 높게 나타나고, 남성일수록, 주위의 비난을 인식할수록, 수혜자를 신뢰하기 힘들수록 기부활동 참여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나눔활동 참여요인이 나눔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기부	
	B	β	B	β	B	β	B	β
(상수)	-1.300		0.805		-2.107		-0.835	
남성더미	-0.844	-0.033**	-0.410	-0.023	-0.438	-0.032**	-0.645	-0.073***
학년	0.459	0.090***	0.217	0.061***	0.241	0.087***	-0.085	-0.048***
종교무유더미	0.483	0.019	0.134	0.007	0.349	0.025*	0.304	0.034**
경제수준	0.306	0.026*	0.173	0.021	0.133	0.021	0.204	0.050***
시간노력손실	-0.107	-0.008	0.020	0.002	-0.127	-0.017	0.071	0.014
주위칭찬	-0.080	-0.006	-0.002	0.000	-0.076	-0.010	-0.105	-0.022
나의즐거움	0.483	0.035*	0.372	0.038*	0.110	0.014	0.209	0.043**
나의죄책감	0.308	0.025	0.147	0.017	0.163	0.024	0.147	0.034*
주위비난	-0.411	-0.034*	-0.291	-0.034*	-0.122	-0.018	-0.212	-0.050***
이타적동기	0.548	0.036*	0.375	0.035*	0.175	0.021	0.005	0.001
개인규범	-0.150	-0.010	-0.255	-0.023	0.105	0.012	0.226	0.041*
자아정체성	0.096	0.006	-0.005	0.000	0.101	0.011	0.145	0.026
주변인인지	0.256	0.019	0.252	0.027*	0.003	0.000	-0.084	-0.018
도움기회	0.789	0.059***	0.288	0.031*	0.501	0.069***	0.369	0.079***
신뢰	-0.454	-0.033**	-0.253	-0.026*	-0.201	-0.027*	-0.160	-0.033**
도움조직 사회자본	1.454	0.187***	0.739	0.136***	0.714	0.170***	0.293	0.108***
수정된 R ²	0.064***		0.032***		0.055***		0.058***	

*p < .05, **p < .01, ***p < .001

<표 IV-9>는 나눔활동 참여요인들이 전체봉사활동 참여시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시간,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 등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전체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부터 살펴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남을 도울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을 돕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낄수록 전체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주위의 비난을 인식할수록, 수혜자를 신뢰하기 힘들수록, 주위의 칭찬이나 좋은 평판을 인식할수록 전체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낮게 나타났다.

표 IV-9 나눔활동 참여요인이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B	β	B	β	B	β
(상수)	-12.832		-4.847		-8.009	
남성더미	-0.986	-0.022	-0.290	-0.010	-0.693	-0.025*
학년	2.407	0.265***	1.298	0.226***	1.108	0.197***
종교무유더미	0.719	0.016	0.432	0.015	0.291	0.010
경제수준	0.807	0.038**	0.326	0.024*	0.479	0.037**
시간노력손실	0.357	0.014	0.123	0.008	0.238	0.015
주위칭찬	-0.703	-0.029*	-0.212	-0.014	-0.488	-0.032*
나의즐거움	1.378	0.055***	0.785	0.049**	0.594	0.038*
나의죄책감	0.656	0.029*	0.090	0.006	0.571	0.041**
주위비난	-0.766	-0.035**	-0.401	-0.029*	-0.368	-0.027*
이타적동기	0.360	0.013	0.408	0.023	-0.041	-0.002
개인규범	-0.310	-0.011	-0.407	-0.023	0.091	0.005
자아정체성	0.621	0.021	0.298	0.016	0.321	0.018
주변인인지	0.163	0.007	0.164	0.011	-0.002	0.000
도움기회	1.509	0.063***	0.679	0.044***	0.829	0.055***
신뢰	-0.839	-0.034**	-0.272	-0.017	-0.567	-0.037**
도움조직 사회자본	2.879	0.208***	1.250	0.142***	1.626	0.189***
수정된 R ²	0.134***		0.079***		0.092***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남을 도울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주위의 비난을 인식할수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강할수록, 남을 도울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록, 남을 돕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낄수록, 나 자신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주위의 비난을 인식할수록,

주위의 칭찬이나 좋은 평판을 인식할수록, 수혜자를 신뢰하기 힘들수록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효과

다음으로 앞의 이론적 논의를 따라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와 같은 나눔활동 참여무유,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유효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유효수, 기부활동 참여유효수와 같은 나눔활동 참여유효수,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시간,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과 같은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등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IV-10>은 남성더미, 학년, 반성적, 종교무유더미, 경제수준, 대도시거주더미, 중소도시거주더미를 통제한 후,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우울감에는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공격성에는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부활동 참여무유변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리더십에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는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도에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에는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나눔활동 참여무유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

변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B	β	B	β	B	β	B	β
(상수)	2.419		3.131		2.827		2.233	
남성더미	0.077	0.057***	-0.183	-0.110***	-0.102	-0.063***	0.053	0.034**
학년	-0.017	-0.065***	0.058	0.175***	0.028	0.086***	-0.006	-0.020
반성적	0.179	0.267***	-0.132	-0.160***	-0.076	-0.095***	0.129	0.167***
종교무유더미	0.018	0.013	0.010	0.006	0.049	0.030*	0.105	0.067***
경제수준	0.107	0.171***	-0.130	-0.169***	-0.073	-0.098***	0.096	0.134***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76	0.056**	-0.081	-0.048**	-0.058	-0.036	0.044	0.028
중소도시거주 더미(읍면기준)	0.021	0.015	-0.051	-0.030	-0.034	-0.021	-0.026	-0.017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	0.031	0.019	-0.044	-0.022	-0.009	-0.004	0.018	0.010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	0.054	0.040**	-0.008	-0.005	-0.009	-0.005	0.141	0.091***
기부 참여무유	0.051	0.038**	-0.027	-0.016	-0.053	-0.033**	0.191	0.124***
수정된 R ²	0.156***		0.142***		0.046***		0.104***	

*p < .05, **p < .01, ***p < .001

표 IV-10 나눔활동 참여무유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2

변수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B	β	B	β	B	β	B	β
(상수)	2.143		2.607		2.701		2.968	
남성더미	0.001	0.001	-0.070	-0.059***	-0.123	-0.074***	-0.076	-0.101***
학년	0.040	0.157***	-0.008	-0.033**	0.057	0.172***	0.000	0.001
반성적	0.172	0.267***	0.181	0.307***	0.090	0.109***	0.039	0.105***
종교무유더미	0.035	0.027*	0.037	0.031**	0.036	0.021	0.044	0.058***
경제수준	0.095	0.159***	0.060	0.109***	0.043	0.056***	0.015	0.043**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114	0.088***	0.072	0.060***	0.059	0.036	0.009	0.011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25	0.019	0.018	0.015	-0.033	-0.020	-0.008	-0.010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	0.019	0.012	0.066	0.046***	0.005	0.003	0.046	0.050***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	0.116	0.089***	0.096	0.081***	0.112	0.067***	0.068	0.089***
기부 참여무유	0.130	0.100***	0.126	0.106***	0.211	0.128***	0.098	0.130***
수정된 R ²	0.149***		0.177***		0.070***		0.073***	

*p < .05, **p < .01, ***p < .001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가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은 남성더미, 학년, 반성적, 종교무유더미, 경제수준, 대도시거주더미, 중소도시거주더미를 통제한 후,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활동 참여횟수 변수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활동 참여횟수 변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우울감과

공격성에는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활동 참여횟수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에는 기부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변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도에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부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변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에는 기부활동 참여횟수, 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II 나눔활동 참여횟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

변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B	β	B	β	B	β	B	β
(상수)	2.473		3.081		2.787		2.337	
남성더미	0.072	0.053***	-0.180	-0.108***	-0.096	-0.059***	0.037	0.024*
학년	-0.018	-0.067***	0.060	0.180***	0.029	0.091***	-0.009	-0.028*
반성적	0.180	0.268***	-0.132	-0.159***	-0.078	-0.097***	0.130	0.169***
종교무유더미	0.017	0.012	0.012	0.007	0.048	0.030*	0.105	0.067***
경제수준	0.107	0.171***	-0.131	-0.170***	-0.074	-0.099***	0.095	0.133***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77	0.057**	-0.078	-0.047**	-0.056	-0.035	0.058	0.038*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20	0.015	-0.045	-0.027	-0.033	-0.020	-0.011	-0.007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1	0.011	-0.001	-0.008	0.000	-0.003	0.003	0.034**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3	0.035**	-0.002	-0.020	-0.001	-0.007	0.008	0.071***
기부 참여횟수	0.005	0.033**	-0.001	-0.003	0.000	0.001	0.020	0.114***
수정된 R ²	0.154***		0.142***		0.044***		0.102***	

*p < .05, **p < .01, ***p < .001

표 IV-11

나눔활동 참여횟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2

변수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B	β	B	β	B	β	B	β
(상수)	2.216		2.718		2.802		3.048	
남성더미	-0.010	-0.008	-0.085	-0.072***	-0.140	-0.085***	-0.086	-0.114***
학년	0.039	0.152***	-0.010	-0.042***	0.054	0.164***	-0.002	-0.011
반성적	0.174	0.270***	0.184	0.312***	0.093	0.113***	0.042	0.111***
종교무유더미	0.036	0.027*	0.038	0.032**	0.037	0.022	0.044	0.058***
경제수준	0.095	0.159***	0.060	0.110***	0.043	0.056***	0.015	0.043**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124	0.095***	0.076	0.064***	0.067	0.041*	0.012	0.016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35	0.027	0.020	0.017	-0.023	-0.013	-0.006	-0.008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2	0.032**	0.003	0.043***	0.002	0.023	0.002	0.053***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6	0.061***	0.004	0.051***	0.005	0.044***	0.003	0.056***
기부 참여횟수	0.014	0.093***	0.011	0.079***	0.020	0.110***	0.009	0.107***
수정된 R ²	0.146***		0.167***		0.065***		0.063***	

*p < .05, **p < .01, ***p < .001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눔활동 참여횟수 변수도 나눔활동 참여무유 변수와 마찬가지로 기부활동 참여횟수 변수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변수가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횟수 변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는 남성더미, 학년, 반성적, 종교무유더미, 경제수준, 대도시거주더미, 중소도시거주더미를 통제한 후,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시간,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 변수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는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 변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우울감에는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공격성에는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시간,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에는 모두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 변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사활동 참여시간 변수도,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비해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

변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B	β	B	β	B	β	B	β
(상수)	2.490		3.073		2.788		2.396	
남성더미	0.068	0.050***	-0.180	-0.108***	-0.094	-0.058***	0.023	0.015
학년	-0.022	-0.080***	0.062	0.185***	0.029	0.091***	-0.018	-0.059***
반성적	0.180	0.268***	-0.132	-0.159***	-0.077	-0.097***	0.131	0.171***
종교무유더미	0.019	0.014	0.011	0.007	0.047	0.029*	0.112	0.072***
경제수준	0.107	0.171***	-0.131	-0.169***	-0.075	-0.100***	0.097	0.136***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81	0.059**	-0.083	-0.050**	-0.059	-0.037*	0.061	0.039*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20	0.015	-0.046	-0.027	-0.033	-0.020	-0.018	-0.011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시간	0.001	0.028*	-0.001	-0.009	0.000	0.003	0.004	0.068***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시간	0.002	0.041***	-0.002	-0.026*	-0.001	-0.012	0.005	0.092***
수정된 R ²	0.154***		0.143***		0.045***		0.093***	

*p < .05, **p < .01, ***p < .001

표 IV-12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2

변수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 의식	
	B	β	B	β	B	β	B	β
(상수)	2.263		2.759		2.858		3.082	
남성더미	-0.020	-0.016	-0.094	-0.079***	-0.155	-0.094***	-0.094	-0.124***
학년	0.032	0.125***	-0.016	-0.069***	0.046	0.140***	-0.006	-0.042**
반성적	0.174	0.271***	0.184	0.312***	0.093	0.114***	0.041	0.110***
종교무유더미	0.040	0.031**	0.040	0.034**	0.044	0.026*	0.047	0.062***
경제수준	0.096	0.161***	0.061	0.111***	0.045	0.059***	0.016	0.045**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127	0.098***	0.080	0.067***	0.073	0.044*	0.014	0.019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30	0.023	0.018	0.015	-0.027	-0.016	-0.008	-0.011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3	0.062***	0.003	0.066***	0.002	0.035**	0.002	0.064***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3	0.075***	0.003	0.073***	0.004	0.076***	0.003	0.099***
수정된 R ²	0.140***		0.164***		0.056***		0.057***	

*p < .05, **p < .01, ***p < .001

2. 질적 면접조사 결과분석

1) 나눔활동 참여실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참여종목이 상당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학교운동장 청소, 주변, 컴퓨터 도우미, 교실 청소, 피켓 들고 캠페인 벌이기와 같은 종목인데 비해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종목은 장애인 봉사활동, 아동센터 봉사활동, 연탄 릴레이 캠페인과 같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나타났다.

김○○ : 그런 건 반별로 다른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19일마다 해요. 학교 운동장도 청소하고 뒤에 용화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거기서 쓰레기줍고 그래요. 등산도 하고.....학교에서 말고 다른데서는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는데...사랑뜰이라는 곳에 고모랑 사촌이랑 같이 가서 장애인들 밥먹는거 도와주고 밥먹고 설거지도 하고, 장난감도 닦고 해요...

박○○ : 학교에서는 뭐 주변같은 것 빼고는 없어요. (학교에서 주변같은 것 하면 봉사시간을 줘요?) 네. 아. 선생님 컴퓨터 미리 갖다드리거나, 출석부나 종이 같은 거 갖고오면은요. (이런 걸 하면 봉사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여기서는 풍선아트요. 그 아동센터에 가서 애들한테 풍선을 가르치고, 축제같은거 참여해서 풍선도 만들어 드리고, 캠페인도 자주 해요...

박△△ : 그냥 청소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버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도우미라고 해서 그거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하고 있어요....저는 동아리에서 일단 하다보니까, 일단 아동센터에 가서 교육봉사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김△△ : (학교에서 하는거...어떤 거예요?) 아침에 청소하고 그런 거요. 아침에 말고, 학교 끝나고 하는 것도 있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에도 하고요.

정○○ : 그냥 방학에 와서 교무실 두시간씩 청소하는 것도 있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환경미화 대회때 다같이 해요...현장학습 같은데 가서도 쓰레기 줍고,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행사중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어린이 회관 같은데도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분들 도움드리고, 국채보상관에서도 했고요...시각장애인분들 이동할 때 도움드린다거나, 밥먹을 때 그릇 놔두는 거랑, 설거지도 해드렸고, 거의 이동보조요...

서○○ : 교내에서 주로 자율활동으로 해서 반 전체가 같이 봉사활동을 나가요. 때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견학을 가서 그 주위에 있는 쓰레기 청소를 하던가 그게 보편적이고요. 지금까지 한거는 그런 거였어요.

안○○ : (학교에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치우기도 하고요. 피켓들고 캠페인같은 것도 해요.

이○○ : 거의 다 대청소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축제같은거 열릴 때 거기서 공연을 하면은 거기서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 : 학교 그냥 자체에서 하는게 아침자율학습시간에 쓰레기 줍는 활동이 있어요....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 말고 엄마가 알려주신 봉사활동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다니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게 청소년 합창단이라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합창을 하면서 장애인 언니 오빠들 도와주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는거는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 대전봉사체험교실에서 연탄나누기라는 연탄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XX : 학교에서 따로 봉사하는 거는 학교 안에 환경미화나 그런거나 그냥 예방교육같은걸로..

기부관련 단체에 종사하면서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이 시간채우기식으로 많이 진행되어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 선생님 : 네. 청소만 잠깐하고 봉사시간 받고, 그런식으로 해서 그냥 학교에서 20시간 채우라니까 그것만 딱 채우고 끝내니까 그런게 좀 아쉽죠. 그런 노력봉사도 있겠지만 좀 더 의미있고, 너희들이 하나의 진로나 하나의 앞으로에 있어서 자기개발에 발전할 수 있는 봉사도 충분히 많다는 거죠. 봉사도 채우면서 본인의 경험도 많이 쌓고.. 이런걸 좀 많이 홍보되고 알리면 좋은데, 그런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간에 뚜렷한 차이점을 느끼고 있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자발성이 없고 봉사시간 채우기 형태로 별로 느낀 점이 없다고 말하고,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자발적이며 이웃에 대한 공동체성 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 : (학교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은?). 어.... 일단 그냥 일단 봉사시간이 거의 없는 애들 위주로 뽑다보니까 그니까 나중에 봉사 관련해서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말을 생기부에 넣거나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봉사시간만 하다보니까 그냥 쓰레기줍기, 청소하기 그런거 하다보니까 별로 느낀 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박△△ :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랄까.. 아 학교에서 하는건 약간 한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것저것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보니까 좀 개인이 하는 거랑 학교에서 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 : (봉사시간이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돼서 나중에 입시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자기소개서에도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쪽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따로 진로에 대해 알 수 없던 부분을 봉사를 통해서 이 직업을 저처럼 확신을 가지는 애들도 있고, 조금 더 알아가는 애들도 있고 하면,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써넣거나 생기부에 넣거나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서○○ :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찾아가던가 그런 식으로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게 낫지, 이런 식은 그냥 시간채우기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청소년들이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같은 그런 정신을 함양하는데 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제 또래도 그렇고 지금 중학생도 그렇고 봉사활동을 한다는건 지하철역에서 피켓들고 있는게 다거든요. 그런거해서 과연 우리가 봉사정신을 느낄 수 있는가..

이◇◇ : 자발성이 없는거를 하면 제가 흥미도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떨어져서 더 열심히 안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걸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 김은지: 봉사활동이라는 의미는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봉사활동의 교육을 한시간 먼저 한다고는 하는데 봉사활동의 의미를 가르쳐줬잖아.. 학교에서 하는건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닌데, 그걸 자원봉사라고 말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 선생님: 앞에 말했던거랑 좀 비슷한데요.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흘러가듯이 같이 하는 거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학생들이마다 생각하는게 다르듯이 나는 이쪽에 관심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해봐야지하는 아이들과, 또는 할게 없는지 하는 애들이 나눠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알아보고 하는거랑 의무감으로 하는거랑은 봉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스스로 계획한 거는 완전 관심없는 건 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관심있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계획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의 영향력 파급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면접에 응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자원봉사활동 이외에 물질기부활동의 경험도 모두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통채우기, 물건판 돈으로 기부하기, 물건기부하기, 해피빈과 같은 포인트 기부하기 등의 다양한 물질기부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 동전모으기 해본적도 있고요...빵모양저금통에 돈채워 오라고 했던 것도 있어요...

박○○ : 네. 1,2학년마다 축제때 아나바다 시장을 열어서 안쓰는 물건이나, 안맞는 옷을 팔면서 모은 돈으로 기부도 하고 그래요.

박△△ : 아 그거 저희 학교에서 여름방학동안 아동국제센터 그런데다가 애들한테 저금통을 돌려가주고 이 저금통을 채우면은 애들한테 봉사시간 4시간을 주는 그런 걸 했었어요.

박△△ : 네.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건 해피빈 모았던 것을 보면.. 그니까 클릭하라고 거기 뜨니까 그냥 보이면 클릭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이다보면 기부좀 하기도 해요.

김△△ : 그 활동은 지진피해 있었을 때 학교에서 물건 모은 적 있었어요. 그리고 동전모으기한 적도 있어요.

정○○ : 네. 반에서 방글라데시에 사는 애들에게 천원씩 모아서 삼만원씩 굿네이버스에 보내는 거예요.

안○○ : 장난감 같은거나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도 하고, 매년 겨울마다 크리스마스썰같은거 돈주고 사고 유니세프에서 트리 장식품이나 인형같은거 사서 돈 보내고 그래요.

이◇◇ : 네. 해피빈이나 중리동에서 저번에 중리행복시장을 했는데, 그때 물건을 해가주고 기부하는게 있었어요...그건 할머니가 할머니네 집 앞에서 그 행사를 해서, 제가 거리를 둘러보다가 기부하는 것이라고 써있어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봐서 옷이나 안쓰는 걸 기부하면 된다고 들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거기서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등 나눔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였다.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거의 받은 경험이 없고 봉사싸이트 정보 정도 알려주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봉사활동 등 나눔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지금보다 봉사활동에 더 많이 접근해서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주었다.

김○○ : (학교에서 봉사활동 관련된 교육같은걸 해줬던 적은?) 아니요. (한번도 없었어요?) 네...(봉사활동 교육같은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좀 더 봉사활동에 접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박○○ : (그러면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나 의미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더 잘할 것 같아요.

김△△ : (혹시 그러면 우리 친구 학교에서 나눔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 관련된 교육같은거 받아본적 있어요?) 봉사활동 교육이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선생님이 와서 해준 적 있어요?)

없었어요...

정○○ : (혹시 학교에서 봉사활동에 관련된 교육같은걸 해준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봉사사이트나, 우리학교와 결연된 기관알려주거나요...

이△△ : (혹시 그러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가기 전에 우리가 왜 봉사활동을 해야되는지
가서 뭘 해야되는지 교육같은걸 선생님이 해주신 적 있어요?) 학교 봉사활동은 한적 없고요.

박△△ : (혹시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나눔교육이나 봉사활동 전에 사전교육을 받아본적
있어요?) 공개적으로 단체로 모여가주고 얘기해주시지는 않고, 그냥 애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
나 선생님 따로 애들앞에서 말해주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잘 얘기는 안해주세요.

기부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도 청소년 나눔관
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률이 많이 낮다고 얘기해주었다. 학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부터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신청하기보다는 입시에 필요해서 마지 못해 신청하는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김△△ 선생님 :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미투위라는 나눔교육 프로그램
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봉사활동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고, 모금이라는것, 왜 도와줘야하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신청률이 엄청 낮아요. 그니까 학교 자체에서의
그런 필요성이나 인식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시간을 준다고 했을 때 그때야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봉사시간을 저희가 다른 실천
교육프로그램이랑 같이 묶어서 했을 때는 봉사시간이 나가긴 나가요. 그니까 신청교육만 참여했
을 때 두시간이 나간다면, 그런 봉사교육프로그램 나갔을때는 플러스 한시간을 해서 세시간을
준다거나 그런식으로 하긴 하는데도, 학교에서 우선 선생님의 반응부터가...그니까 이거는 말그대
로 선생님들조차도 봉사에서 학생들이 하나의 입시나 그런게 필요해서 하는거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 선생님 : 아니요. 기부교육이 아니라 인권이나 이런 교육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가 목적이라면 좀 어렵겠다.. 저는. 내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누군가랑 나눠야돼
그걸 전제로 하면 자칫잘못하면 진정한 기부의를 주기 어렵다는거죠. 나눔의식을 주려면
그 배경을 심어줘야 하는거죠. 꼭 제3세계 사람, 나와 멀리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게 아니라는거죠.
기부라는건.. 학교에서, 반에서, 동아리에서 어딘가 자매결연해서 돈이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같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의 마인드는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고, 내가 저사람을 도와주는건 내가 위에 있다는게 아니라,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하지만 저 사람도 같이 살아나가야 나도 살아나가는 기회가 보장이 된다는걸 인식할 수 있는...

봉사활동 기관에 종사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은 봉사활동 등 나눔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해주었다. 효과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봉사활동도 제대로 이뤄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 선생님 : 이제 교육개정이 일어나면서 봉사활동이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아이들은 인식을 하고 있죠. 의무봉사활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봉사활동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기에게 맞는 봉사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다보니깐 아이들 관심도 떨어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인거죠. 한마디로 준비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과 평가가 굉장히 나쁘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해야하니까 무조건 시키는거고, 제대로 된 교육없이 시키는거고.....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봉사교육은 대집단으로 많이 진행이 되요. 전교생을 한다던지, 아니면 학년별로 한다던지. 뭐 긍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봉사교육을 나가지만 반별로 소그룹으로 진행될때는 교육의 효과가 높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봉사활동교육이 먼저, 소양교육이 먼저 되어야 봉사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학창시절에만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웃에 대한 봉사라던지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봉사활동 등 나눔활동이 자신이 탐색하거나 설정하고 있는 자신의 향후 진로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청소년 봉사활동을 진로와 연계해서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진로체험활동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편이다.

박△△ : 네. 저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인정이 안되다보

니까.. 그냥 아동센터에서 하는것만도 만족하긴 하는데, 만약에 유치원 이런데로 가면 좀 더 제가 배울 것도 많고 알아가는 것도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요.

박△△ : 만약에 간호사나 의사가 되고 싶은 애들은 병원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병원에서 안받아 주는 경우도 조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어렵고 받아주는데가 요양원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그런데만 되다보니까 좀 그렇게 영향을 못미치는 것 같아요.

2) 나눔활동 참여관련 요인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들 피력하였다. 우선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봉사활동 터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두불사이트에 들어가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터전들이 많으며,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직접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선생님께서 정보를 전달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나눔활동 전문 코디네이터의 필요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김○○ : (고아원같은데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가서 해야하는지 연락할 수 있는 게 어려운거죠?) 네. (그런 걸 학교가 그런데서 알려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 대부분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두불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올라와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보육원 이런데는 아예 없잖아요. 그런게..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박○○ : 설명도 해주시고, 프린트도 나눠주시는데 기관이나 센터 기관이나 다른 기관 유치원 전화번호, 메일 그런거 프린트로 한번에 설명 되어 있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봉사활동 동아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봉사활동 동아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학교에는 봉사활동 동아리는 많지 않고 댄스부 등 다른 목적의 동아리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봉사활동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고 일반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교 내에 봉사활동 동아리의 설치 필요성과 일반동아리의 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 : 학교에는 이런 동아리 말고 댄스부나 그런게 많아요. (거기에 봉사랑 관련된 건 없고요?) 없을걸요..

김◇◇ : 그냥 봉사에 관련되지 않는 동아리여도 봉사시간을 주는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홍보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홍보동아리 그냥 중학교가서 홍보를 하면 봉사시간을 주거든요.

청소년 나눔관련 기관에 게시는 전문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아리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얘기해주었다. 다른 청소년 기관에 게시 전문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아리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해주었다.

김△△ 선생님 : 우선은 참여에 있어서 흥미도가 좀 틀려요. 저희가 왜냐면 친구들과 다같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하는 것은 참여에 대한 흥미가 틀리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것처럼.. 또 혼자하는 것보단 여러명이서 다같이 하는게 아이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것 뿐더러 이게 단순하게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기획하고 하다보니까 더 뿌듯해하고 남는게 많죠. 그래서 많이 능동적이고....

조○○ 선생님 : 네. 개인별로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고 봉사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 수업이나 자기 과외나 이런걸 하면은.. 그니까 자기가 어떤 지점을 찾아서 하기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어디 간다고 했을 때는 시설이나 이런테를 하고 싶어도 시설은 잘 안받아주거든요....아이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조직의 틀을 갖고 있는 게 좋고, 개별적으로 하는거는 우리 두볼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통합포털서비스인데 거길 통해서 하면 공공기관에 가서 일손돕기라든지 약간 단순하면서 일손돕기형태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봉사활동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뭔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고, 대상자들과 교류를 하고 교감을 할 수 있으면 뭔가 조금 더 지속성도 있고, 꾸준하게 하는데 그런게 아니다 보니까 흥미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죠. 아무래도 시간때우기식..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찾아가면 내가 정기적으로 어떤 곳에 무료급식을 간다던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하다보면 그것도 괜찮고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부를 하는데 있어 기부수혜자와 기부중계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기부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활용되는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고,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일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 : 그런거 낼 때 직접 전해주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그러면 학교에서 어디에 쓰일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나중에 설명을 해준다면은 다음에 또 모을 때 친구들이 잘 낼수도 있겠네요.) 네. 믿음이 가니까요.

박△△ : 네. 그 옆에다가 막 기부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도 해주시고, 여기다가 기부를 한다 하는데, 나중에 그게 좀.. 그게 이해가 가는게, 그래서 기부를 안하는데 그게 좀 다른데도 쓰일 것 같고, 그런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상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도 있었다. 그냥 단순히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받아가지고 물질기부를 하는 것보다는 내 노력에 의해서 얻은 물질을 기부하는 것이 교육상 훨씬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김○○ 선생님 : 그냥 단순히 물질기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 노력에 의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냥 부모한테서 용돈 탄 것을 가지고 독거노인에게 과자를 사다드렸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어떤 뿌듯함이나 만족감같은게 크죠.

이◇◇ 선생님 : 지금 우리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물질기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니까 사회봉사활동 같은 경우들에서도 조금만 선을 넘어서면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 노동착취로도 볼 수 있고, 물질기부같은 경우에서도 조금만 선을 넘어서 보면 경제적 착취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너 이렇게 점수를 받을라 그러면 물질기부를 해야된다 상당히 그 미묘한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상황에서는 대부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물질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그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부모가 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전달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던지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3) 나눔활동 참여효과

청소년 나눔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참여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주었다. 우선 기부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혼자서 그리고 기부를 받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청소년 기부활동 전문가 선생님은 나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도 나눔활동이 자존감이 부족했던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고 얘기해주었다.

김○○ : (우리 학생들이 물질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을 주면서 기부도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요.

박△△ : 그냥 넣었을 때.. 저같은 경우는 넣었을 때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의 뿌듯함..

이◇◇ : 제가 2년전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네팔에 있는 친구한테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서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게 되게 기쁘고, 친구가 제가 전에 항상 후원해주면 친구가 거기서 잘 살고 있고,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성적이 오르고 그러면 저도 덩달아서 기뻐요.

이□□ 선생님 : 일단은 물질기부든 무슨기부든 나눔을 한다는것에 있어서는 일단 자아존중감이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들거든요. 일단은 내가 남을 돕는다는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되게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나눔으로써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문화가 형성되는거잖아요. 그런게 이제 의미가 있는거죠. 그리고 또 내가 나누는거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거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박○○ 선생님 : 좋은 쪽으로는.. 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서 우리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예요.. 학업성취도가 뒤에서 90정도 넘어가는 학생들인데, 자기가 살았던 인생 속에서 성공보다는 실패했던 경험이 많았던 학생들이고, 그래서 자존감이 부족했던 학생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가정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이 많고. 이 지역이 기초수급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이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고, 남을 돕는데서 보람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글 받아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나눔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경험이 자신의 진로성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장래희망이 판사, 검사인 청소년은 자신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었고, 장래희망이 유치원교사인 청소년도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설정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말해주었고, 사회복지사가 꿈인 청소년도 자신의 진로관련 체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해주었다.

김○○ : (혹시 우리친구 장래희망이 뭔지 물어봐도 되요?) 장래희망은 판사나 검사요. (봉사활동 하는 게 나중에 장래희망 꿈꾸는 거에 도움이 된 적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가가기도 쉬울 것 같고요.

박△△ : 아무래도 진로쪽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유아교육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풍선아트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쪽이 좀 좋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일단 봉사활동 통해서 진로를 좀 확정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유치원교사가 된다는 꿈도 이게 좀 고등학교 들어와서 흔들렸는데, 일단 애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 직업에 대해서 더 알게되고 하다보니까 좀 더 확신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 직업이구나 하는.

이◇◇ : 저는 사회복지사가 꿈인데 저는 노인쪽으로 사회복지를 하는게 제 꿈이었어요. 노인분들 밥 드시는거 도와드리고, 말벗해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이런 거요.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등 청소년 나눔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성격이 좀 더 적극적이게 되고 리더십이 향상되는 것 같다고 얘기해주었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자원봉사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리더십 등을 키우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또 다른 친구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동아리 단장을 맡아 단체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좀 더 적극적이고 밝고 진취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박△△ : 아 성격으로 하면 일단 동아리하다 보니깐 일단 제가 애들 의견을 먼저 수용하게 되고, 좀 더 리더십도 키우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저희가 저번에는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아이들이랑 거기 계신 분들이랑 좀 다르게 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많았어요.

고○○ :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게,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보면서 성격도 좀 더 적극적이고 밝게 변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게 이 동아리의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걸 맡으면서도 진취적인 성향도 커지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봉사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 선생님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실해지고 단정해지는 등 자아정체성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주었다.

김○○ 선생님 : 많이 일어나죠. 일단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것은 뭐냐하면 봉사동아리를 지도하면 서도 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생활을 해가면서 보면은 1학년 때 모습하고 2학년 때 모습이 달라지고, 3학년때 모습이 달라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학교생활에 성실하지 않았던 친구들 조차도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도 생기고 목표를 향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이런 변화도 일어나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1학년때도 화장하고 치마도 짧게 입고 다니던 이런 녀석들이 한 1년 지나고 나면 정말 단정하게 바뀌어요. 콧코 째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정말 감동이 아닐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활동 과정에서 사회공동체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얘기해주었다. 한 청소년은 장애인 봉사활동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였다. 그리고 다른 청소년은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애들과 어르신들을 도와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교회에서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을 한 친구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드린 것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해주었다. 청소년활동 기관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고 사회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김○○ : 뿌듯했고요. 장애인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장애인이란 편견이 없어졌고요...초등학교때 봉사활동을 하면은 느끼는 게 많으니까요.

박○○ : (이 동아리를 하면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있어요?) 친구들이랑 더 말을

잘하게 되었고, 말하는 걸 좀 더 잘하게 됐어요....불편한 사람들이나 몸이 힘드신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애들도 같이 놀아주고.. 힘드신분들 도와드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애들도 있구나를 느꼈어요.

정○○ :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분들 도움드리면서 제가 시각장애인분들 눈이 되어드린 것 같아서 기분좋았어요.

이△△ : 할머니들이나 여러사람들 기쁘게 해주는게 뭔가 제가 마음이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 저는 원래 장애인이 되게 무섭고, 저희와 다르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언니오빠들은 단지 몸이 불편할뿐이지 저희와 생각과 마음은 다 똑같고 저희와 같이 놀고 싶고, 저희와 같이 어울리고 싶다는걸 알게 되었고...

조○○ 선생님 : 네.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생각을 배려심이 좀 생기죠. 나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남들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배려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고 이런 곳이 있구나 우리 사회에.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특성상 또래를 형성해서 3명에서 가기도 하고, 동아리 형태로 가기도 하고 해서 가면은 나름대로 사회성을 길러요.

3. 전문가 FGI 결과분석

1)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확대 필요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전문가 FGI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는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화에 의한 봉사학습의 확대, 봉사활동 결과의 입시제도에의 반영, 상, 장학금과 같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보상제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의 자발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교육제도에 의한 강제, 인정보상제에 의한 유도 정책과 같은 것들이 봉사활동에 아예 무관심한 청소년들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이끄는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자원봉사의 원래 정신인 자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은 줄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 청소년 이름을 붙이게 되면 실제로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제도적으로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무화 된 부분도 많고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하고싶어서 이렇게 막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사실은 자원봉사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봉사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조△△ : 지금... 창체활동 안에 봉사활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4개영역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라던가, 개별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봉사 동아리에 참여한다던지, 단체 참여해서 하는 부분 만큼도 학교안에서 해버리고, 수업시간에 다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니까 자원성을 더 없애버리는 상황이고, 자발성이나 이런것들을 더 없애버리는 상황이고...

이○○ :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거에 첨언을 하자면 저희 센터에서 매년 도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있어요....자원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남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이 무시못할 퍼센트로 내신 성적 반영이 무시 못하는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이○○: 상이라던지, 장학금이라던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언했던건데 그렇다면 그게 과연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냐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물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봉사활동의 맛을 알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들도.. 첫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선행해서 진행해줘야 하지만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본인이 원하는 자원봉사를.. 그래서 남이 이런거 해줄게 이런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것들..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네. 그니까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에 발을 디딜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강제봉사가 되는.. .

박○○: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학생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많이 누적을 해서 그만큼 대학교갈 때 도움을 받느냐..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그다지 도움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떤 목표가 정해져서 간호사가 되겠다.. 병원가서 계속 의사되겠다.. 그런 활동한것만, 지속적으로 활동한것만 어느정도 도움을 받고, 지금 제가 주변에 학생들.. 저는 공고이기 때문에 절반은 취업하고, 절반은 대학교 가고 합니다. 하는데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대학교 갈 때 가산점 주는 것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100시간 이상하면 몇 점, 150시간하면 몇점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그런거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제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런데 가는데서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다른 학생들 일반 학과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 진로와 관련되어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현재보다 인센티브가 좀 더 주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청소년기에 어떤 인성을 형성하는 마지막 시기라고 본다면 그때의 학창시절의 봉사 경험이 사회에서까지 대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까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조금 부연을 드리면 인센티브가 저는 어떤 동기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영역을 넓혀나가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적인 면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표창이라던지 시상이라던지 이런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좋겠지만, 그걸 적립해서 다음에 어떻게 그 시간만큼을 활용하고.. 이런 형태의 또는 더 나아가서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인센티브의 도입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필요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제기된 다음 문제는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필요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해서 훨씬 낫다는 것이다.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의 형태에는 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전문 봉사활동 동아리는 아닌 일반 동아리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동아리활동과 연계된 봉사활동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창체활동에도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게 기본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으므로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 : 저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지사상이라던지 상을 심사를 통해서 주는게 있는데, 어제 저는 면접심사를 다녀왔어요. 주요 상을 받는 학생들을 만나보고, 담당지도자를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되는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선배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육, 선생님도 인터랙트를 하시지만.. 체계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영역별로 인터랙트들 RCY 그런 동아리들은 체계가 돼서 분과별, 팀별 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자 선정도 계속 이어져오는 독거노인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독거노인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개인이 하기에는 충분히 쉽지 않은 것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잘 받으면서 타인과 친구, 또래집단과의 어떻게 보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 활동들이 저는 개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자원봉사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청소년들은 특성상 기본 또래문화이거든요. 어른들이 시켜서 하면 오히려 반항심과 거부심만 낳는거고, 친구가 하자고 하고 그들의 언어로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거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전달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높고요. 이거는 만족도나 여러 가지가 높고, 그러려면 또래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 문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아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선생님들을 꼭 한분을 끼게 해서 체제를 합니다. 교사가 있어야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도교사가 있어야면 동아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안그러면 잘못하면 불법써클이라던가, 불량써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제제를 두고 있어요.

3)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제기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활동의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의 자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성인들의 경우 일반적인 자원봉사도 장려되지만 재능기부 형태의 자원봉사도 장려된다. 변호사가 직업인 성인이 일반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무료변론 활동과 같은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아직 성인들처럼 재능이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요리를 자신의 진로로 삼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요리봉사를 한다든지, 음악을 자신의 진로로 설정한 청소년들의 경우 음악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면 너무 진로위주로 봉사활동이 쏠리게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자원봉사의 자발성이 훼손될 수 있고, 또 청소년기에 자원봉사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성과를 놓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래 형태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진로체험활동과 구분이 안되는 형태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보면 저희 딸내미가 진로와 연계된 봉사활동이 진학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애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얼마나 짜냈는지 몰라요. 그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그 계통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일관성 있게 받는 부분들을 더 우선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만들어주면서 제가 느꼈고, 애도 느낀게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로 갈 것이라라는게 아직도 무궁무진한데 그 어떤 한 획일화된 일관성있게 봉사활동을 해야된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애도 싫어하고, 지루해 하고, 활동 자체도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그걸 또 연계시켜주는 것도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연계시켜 주면서도 이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또 어떡해요.. 애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그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든지 봉사쪽은 제도화하고 의무화하고 이런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거지, 여기에 자발성이라는건 없어지는거죠.

김△△: 동기부여나 청소년의 봉사 참여율을 어느 쪽에서 접근했을 때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이건간에 다양하게 접하면서.. 아까 동아리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개별활동은 쉽지 않은거죠. 혼자 어디 시설에가서 봉사활동하러 왔습니다 이거보다는 같이 움직이고 이럴 때 사회성도 길러지는건데, 봉사의 영역도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영역들은 한번씩 접근해보고 접촉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진로도 고민하면서 탐색해보고 그렇게 간접경험을 하다가 ‘이게 정말 나한테 맞구나’라고 해서 진로를 선택하는게 그게 더 교육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조심스럽게 가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 청소년 기부활동 활성화의 필요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제기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자원봉사외에 기부활동 활성화에 대한 문제였다. 청소년 기부활동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여 돈을 버는 연령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라는 행위가 자원봉사와는 또 다르고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교육도 받고 기부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부를 교육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 청소년 기부활동 활성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은 청소년들이 아직 경제활동에 종사하여 돈을 버는 연령대가 아니고, 기부활동을 입시 등과 연계시켜서 시행하면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기부금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기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외에 기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 기부활동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안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위상이 설정되어야 되며, 반드시 합리적인 기부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청소년 개인이 아니라 청소년 기부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영리 ngo단체다 보니까 모금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단체고, 저희가 모금 분야에서도 스쿨 펀드레이징.. 그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에서는 활발히 진행을 하고 그래서 사실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까지 사업이라던지 모금을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부를 하라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의 필요성이라던지 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기부해야 아니고, 이러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눔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나눔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더 나아간다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던지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지원해주는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초등까지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와 나눔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희망편지쓰기 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230만명 정도 70프로 참여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착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고, 해외 아동의 하루 일상이 담겨있는 영상을 보고 자기와의 생활을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고등에서는 힘든 부분들이 초등학생은 감성이 살아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그런걸 느낄지언정 또래문화라는데 있다보니까 표출을 할 수없고, 입시와 관련없고, 그리고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기부라는데 저금통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저금통이라는것도 물론 의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자기가 동전 하나하나를 모아서 기부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교육적인 효과라던지 그거와 관련된 피드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말씀하신것처럼 필리핀 태풍, 네팔 지진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내야되겠구나 하는거지만,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중요한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기부하는건 말이 안되죠.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발돋움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눔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중학교는 조금 덜하지만 고등학교는 어쨌든 교육을 하려면 학교에서 시간을 빼야하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학교장이라던지, 담당선생님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시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부가 자원봉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걸로 가야되는 것인데, 자원봉사 대신에 기부를 한다라는 인식이 또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원봉사를 보완해서 자기가 시간이 정말 없고 다른 방향으로 기부를 한다던지 그런게 있을 수가 있는데.. 기부문화의 확산, 문화의 확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면접촉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로 시간이 나지 않아서 기부로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도 문화의 확산이 필요한건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타 선진국이나 OECD 가입국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부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하는.. 기부가 강제가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되는 건데, 이것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면접을 봤던 동아리중에 한 동아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자회를.. 프리마켓에 참여하는거죠. 프리마켓에 참여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다른데서 기증받은 물품을 바자회에 참여해서 판매를 해서 20만원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20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비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모은 돈을 연말쯤에 이웃에 기부하는.. 정말 저는 봤을 때 그렇게 정말 좋은 하나의 기부문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니까 기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부는 정말 좋은거거든요. 기부문화가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전에 네이버에서 쿵을 기부하는거 있어서 저도 모아서 기부하고 그랬는데, 굿네이버스에서 해외아동돕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을 돕는거는 다 좋은거죠. 그런데 그 의도가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가 문제인거죠.

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김○○: 기부는 강제될 수도 없는거고, 해서는 안되는거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더 그렇고, 중요한거는 왜 해야 되는지만 알려주면 하는 아이들은 하거든요. 그니까 왜 해야되는지는 제도적으로라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는 할수 있는 창고만 열어주면 할 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고요.

김△△: 제가 왜 여쭙보냐하면 아마도 지금도 어떤 무슨 성금해서 내는것도 있을거고, 국제아동 구호단체들 이런쪽을 통해서 기부하는 친구들도 많을거고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데이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청소년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쪽에 포인트를 두고 뭔가 또 말는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 봉사시간에는 어떤 봉사는 한시간 인정하고, 두시간 인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학생들쪽에 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뭔가를 줘야지만 되는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것이나, 하다못해 십만원이 됐던, 백만원이 됐던 아니면 만원이 됐던 기준을 정해서 한 시간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환경에서 과연 내 자식에게 땀흘려서 봉사하고 시간을 채우게끔.. 지금 청소년들의 봉사시간은 거의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발적이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활동이던 어찌 됐던, 그 활동을 시킬것이나 아니면 그냥 돈으로만 내고 할것이나.. 거의 아마 대부분은 글썄요. 어느 수치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기부쪽을 전환이 되고, 자원봉사쪽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거죠.

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 기부, 저는 진짜 우려스러워서 하는건데, 하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계층갈등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가지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쏟아 붓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기부입학제도 생각하는데..

5)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의 강화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자원봉사이든 기부이든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입시와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도화, 인정보상제 강화 등을 통해 자발성이 일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 기부에 대한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가르치는 형태이든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육형이든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학교보다는 현장에서 학교를 찾아가든 아니면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시키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문가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보다는 시설, 단체 등의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었다.

조△△ : 교육이 좋은데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좀 있죠.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자꾸 뭘 하려고하면 똑같습니다. 그거는 얘기하기 무려한 정도의 입시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축소되고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도적으로 간다고 하면 제도에서는 아이들을 일정시간 되면 다 내보내고 밖에 나가서 이런 걸 지향점을 찾아서 교육을 받던지, 알려주는 단체 있으니까 가서 배워오라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 보내려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뭘 해야되고, 아이들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오늘 쪽 이야기 나왔던 것도 자원봉사도 그렇고 기부나 이런 것도 학교가 아이들을 내놓는 그래서 사회에서 다같이 맡기는 그런 교육개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 다 책임을 두거든요. 그런데 학교들도 자기들도 나중에 부담이 된다는거죠. 요즘 아이들이 정보가 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찾아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벗어나서 상당부분은 학교는 지식을 창조적인 부분에서 그걸 높이고, 노벨상을 탈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높이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회에 맡겨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이들도 기부교육 이런 것도 학교에서 시키면 하나도 안듣습니다. 봉사교육도 대부분 그렇고, 계속 왜곡만 남을 수 밖에 없다는거죠.

이○○ : 저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저도 소규모 교육부터 대규모 교육까지 해봤는데,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전교생을 체육관에 다 집어넣고서 교육을 진행하죠. 천명.. 그러면 아이들이 안듣거든요. 교장선생님 훈시말씀이죠. 아이들은 다 떠들고 있고..

이○○: 그니까 이게 교육이라는거는 소규모로 진행될수록 효과가 높은건데 학교에서 그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간썰는 거는 아이들 통째로 한시간 빼서 자원봉사교육 딱 시키고, 교육적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은 했다. 자원봉사 나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자원봉사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소규모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반별로 하던지, 동아리별로 연계되는 기관에 나가서 교육을 받던지.. 그런식으로 효과가 높은 교육을 좀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 대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요. 강사분들을 많이 양성해주셔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요. 반별로 한명씩 저희가 요청한만큼 강사를 보내주세요. 그쪽에서.

이○○ : 저희도 전 직원이 나가서 어느 중학교 반별로 가서 3일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학교에서는 한명 딱 불러서 전교생 다, 체육관에서.. 그니까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 그에 따라서 교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은 교육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하는게 낫지않을까..

이○○: 교육이 교육으로써 끝나는게 아니라, 교육이 활동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자원봉사라던지 모든건 준비, 실행, 평가로 가야되는데 준비단계거든요. 그리고 준비단계를 거쳤으면 실행 단계로 가야되는데 준비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그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있고, 그 교육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다시 준비를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단절된 형태로 가버리니까요..

6)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대한 문제였다.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모두 맡아서 구성해서 진행하는 형태와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기관, 시설쪽에 위탁을 해서 그 쪽 나눔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다. 전문가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되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 : 기본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해야하는 거 같고요. 교사가 아이들의 수준과 발달사항을 보고 적절한 언어와 기자재나 그 당시의 효과적인 것들로 기본적인 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실제로 체험해본다거나 경험해본다거나 이런 건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는게 바람직한 거는 누구나 답을 아는데.. 이거는 책임의 소재, 안전과 관련된 책임의 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바람직한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지는 상태인데, 어쨌든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안에서 전혀 아이들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학교가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을 항상 두고 시작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청소년지도사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전문가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통해서 가야 의미가 있는건데 그거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던져만 놓아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적인 도움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 : 학교에서 교사가 계획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인데 이게 분명히 자생동아리거든요. 자생인데 교사는 관리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거고, 그런데 자생동아리의 활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자기주도성해서 큰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 : 지도자, 교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복지사 다 지도자들이 있지만 저는 지도자들의 역할은 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끔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계획된 봉사활동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만 따라서 해야돼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계획을 하되,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기 자발적으로 학교를 틀고, 변형 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김○○: 저희 기관같은 경우에는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신청해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대규모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계획하고 컨트롤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대상도 한정되어 있고, 연속성이라는게 사실 힘들거든요. 현장의 기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사업이 되는거고,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좋기는 하지만 연속성이라던지 더 많은 인원에게 오픈할 수 없는 한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도 학교 외부의 기관으로서 프로그램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의 부담도 덜고, 학생들도 교육과 봉사를 같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게 되죠.

김△△: 저희들쪽의 고민은 자원봉사센터 현장쪽에서 있다보니까 주문을 받는 부분들이.. 물론 청소년 봉사활동 자체가 어느 특정시기에 확 몰리는 현상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방학기간에 몰리는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마땅히 할 일감을 못찾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런쪽에서 보면 자원봉사 관련해서 언제든지 그곳을 찾아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터전들이 자꾸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은 많이들 만들어 줘야지만 되지 않을까하는 책무같은것도 느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때는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가져가려는 노력들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열려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문제였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교사에 대한 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 강화, 전문 연수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아직 충남쪽에는 확답은 못받았는데, 저희는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학교자원봉사를 하는 선생님들, 어떤식으로든 인사고과를 줄 수 있는.. 그게 영점 몇점이라고 그러더라도.. 직접적

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마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다른 교과과정속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 혁신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그러냐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도 강사양성해서 많이들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인데 겨우겨우 문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데가면 500명, 600명.. 그마저도 저희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알려는 주고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쪽에서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누가하느냐, 제가 봤을때는 담당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절대적인게 아니냐고 봐야겠죠. 마인드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요.

이○○ : 그리고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산점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던지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받아들이시는게.. 일례로 청소년 활동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맹과 관련되어 있는 스카우트라던지.. 그런것과 관련된 교사가산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쪽분야의 활동은 완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가산점이냐 그런게 교사한테 주어지느냐 안주어지느냐 그런게 활동과 외부의 활동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오히려 강화하면 강화할것이지 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 그게요. 제가 동아리를 맡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업무가 엄청나게 따라 붙어요. 그게 무시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어지니까 그럼 안하지 뭐.. 다른 선생님들 교원평가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도 안준다고 하면 안할 것 같아요, 저같아도.

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티전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오면 그게 오히려 일이거든요. 아이들을 돌봐야하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올바르게 활동하는지 아이들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왔으면 활동을 제대로할텐데, 교육을 받지 않고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탄질을 하는거죠. 청소하랬더니 대충 청소하고 빗자루 던져버리고.. 그걸 수거하는것도 일이고, 그렇다보니까 자원봉사 티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거예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안받겠다고..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던 동아리라던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것이나.. 아이들한테 주는것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관들은 별도의 일을 하나 더 떠맡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의미인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8)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 신설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나눔활동 지역 코디네이터 제도 신설에 대한 문제였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역할을 수행할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네. 지역 코디네이터를 한번 줘.. 그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딜가서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박○○: 그런 정보가 거의 없어요.

조△△: 그러니까요. 가서 물어보면 소규모의 봉사활동을 아이들하고 하고 싶다는 교육은 잘 시키는데,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찾기가 진짜 힘들고요. 거기에다가 몇 개 더해버리면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회는 만들어나가고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기관이던지 사람이던지..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이 있으면 향후에는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발전을 계속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지원체계망 이런 것들이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도 학교랑 바로 소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서 누가 소통만 된다고 하면 서로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없다보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답답하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박○○ : 학교에서도요. 업무가 맨날 바뀌잖아요. 업무분장도 맨날 바뀌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업무가 잘 안바뀌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요즘은 진로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좀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V 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제 V 장 결론¹²⁾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등의 트렌드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 정, 2013)이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악화시키고 사회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사회통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하에,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참여요인,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국내외 주요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적 지원현황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셋째, 청소년의 나눔활동에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질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한 다음, 넷째,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쳐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최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청소년 나눔활동에 관한 국내외 기존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정의를 청소년 자원봉사와 물질기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고,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성, 연령, 교육, 수입, 종교, 참여동기 등의 개인 특성 관련요인), 상황적 요인(주변인 효과, 도움의 기회, 수혜자의 특성), 사회적 요인(나눔활동 관련조직 사회적 자본)을 설정하였으며, 청소년 나눔활동

12)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의 참여효과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도, 리더십,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적 요인(다문화수용성, 사회공동체성)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적 지원의 주요 현황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였다.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청소년 나눔활동 지원제도의 주요 현황에 대한 검토는 양적, 질적 조사와 전문가 FGI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83.9%가 전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78.1%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외에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4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활동에는 전체 청소년들 중 51.8%가 지난 1년간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에는 나눔활동 관련 조직 사회자본, 도움기회, 주변인 인지, 개인규범, 이타적 동기, 나의 즐거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해서는 기부활동 참여경험, 참여횟수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경험, 참여횟수가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경험, 참여횟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제일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조사결과에서도 양적 조사와 비슷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FGI를 통해서는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확대 필요,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필요,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활동 활성화의 문제, 청소년 기부활동의 신중한 활성화의 필요,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의 강화,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 코디네이터의 신설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양적, 질적 조사결과, 전문가 FGI에 나타난 결과와 함께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적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검토를 통한 이론적 논의, 국내외 정책현황,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질적 설문조사 결과분석,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FGI 결과분석,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적 개선방안은 총 10개인데, 봉사활동 자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 강화,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새로운 나눔활동으로써의 기부활동에 대한 제언(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 나눔활동 지원인프라 강화(나눔활동의 지역사회 연계강화,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 담당교사 인센티브 강화, 두블넷 시스템의 개선, 정책수행기구의 체계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제시방안은 자원봉사 등 현재 청소년 나눔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강화시켜 미래사회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

이 연구의 첫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시간 확대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창의적 체험활동 등 봉사학습제도의 보수적 적용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이 많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시간은 많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수행한 양적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 참여무유, 참여횟수, 참여시간의 모든 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보다는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참여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질적 면접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가 훨씬 자발적이고 훨씬 덜 형식적이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FGI 분석결과에서도 봉사활동 결과의 입시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한 봉사학습의 제도적 강화, 인정보상제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의 원래 중요한 가치인 자발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보다는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이러한 논리적 분석결과를 받아들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중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려나가는 지침을 학교 현장에 보내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의 자발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 강화

이 연구의 두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의 강화이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의 입시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내 봉사학습의 제도적 강화, 여러 가지 인정보상제에 의한 인센티브제 강화 등으로 인해 봉사활동 원래의 자발성은 약화되고 봉사학습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학습을 통해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원래의 정신인 자발성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입시연계, 봉사학습의 강화, 인정보상제의 실시 등으로 자발적 참여동기가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의 자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3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질적 면접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지금보다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되고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FGI에서도 입시와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도화, 인정보상제 강화 등을 통해 자발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은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청소년 자원봉사 등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주도하되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주도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시설, 단체 등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방문, 혹은 청소년들의 기관초대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자원봉사 외에 최근에 사회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학교 교육현장에 이러한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의 강화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시설,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하에 이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교육이 강화되도록 시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이 연구의 세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이다. 현재 학교에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동아리 형태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개별적인 형태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아리, 단체, 시설 등 나눔활동 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경험이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무유, 참여횟수, 참여시간 등 모든 나눔활동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동아리활동의 형태로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질적 면접조사에서도 동아리를 통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으며, 봉사활동 동아리가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동아리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 FGI 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형태가 개인적인 형태보다는 동아리를 통한 참여형태가 훨씬 나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는 학교마다 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동아리를 많이 설치하여 봉사동아리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봉사활동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일반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봉사활동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이러한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

이 연구의 네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이다. 현재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기부활동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 참여무유, 참여횟수, 참여시간의 모든 면에서, 청소년들의 기부활동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보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질적 면접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물질기부가 가져다 준 뿌듯함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기존의 청소년들이 돈을 버는 연령대는 아니지만 기존의 자원봉사 외에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 기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만, 기부활동을 활성화함에 있어, 청소년의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기부금의 편차가 커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정해서는 안되고 자원봉사활동을 보완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청소년 개인이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기부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소액기부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게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에서 학교, 관련기관 등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취지의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이 연구의 다섯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이다.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에서 담당교사 선생님이 직접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기획만 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시설, 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인지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전문으로 담당하고 비인지적인 부분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시설, 단체에서 맡아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모두 맡아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기관, 시설 쪽에 위탁을 해서 그쪽 나눔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도록 지침을 내리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지역사회 시설, 단체 등의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시설, 단체 등에서는 청소년 나눔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발굴, 체계적인 운영방법 등을 발전시켜서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

이 연구의 여섯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나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간의 연계를 원활히 잘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학교 담당자의 잦은 교체, 입시 위주 학교문화로 인한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와의 연계 약화 등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간의 연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의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 전체의 31.6%가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의 전문가 FGI에서도 각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학교 교사, 현장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역할을 전담해서 수행할 전문코디네이터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의 신설은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나눔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각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를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이 연구의 일곱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이다. 각 학교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들이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많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의 업무가산점 등을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이것이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 많은 분들이 청소년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여러 정책들과 함께 각 학교의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 담당교사에 대한 인사고과에서의 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문 연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해당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 나눔활동이 담당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사기저하로 인해 비활성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8) 두볼넷 시스템의 상호작용 강화형으로의 개선

이 연구의 여덟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 나눔활동 사이트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두볼넷 시스템의 개편이다.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39.2%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이 34.7%가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면접조사에서도 두볼넷에 들어가도 원하는 터전들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직접 봉사활동 터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두볼넷 시스템은 터전이 봉사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하면, 청소년의 욕구나 의사가 터전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과정없이 청소년이 정해져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터전과 청소년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견의 조율 등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두볼넷 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청소년과 터전과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이 수정될 수도 있는 기존보다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형태로 두볼넷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볼넷 시스템을 상호작용 강화형으로 개선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아 진행해야 될 것이다.

9)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 수행기구의 체계화

이 연구의 아홉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 수행기구의 체계화이다. 현재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수행의 중추기구인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절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많이 축소되어 있으며 정책실행을 위한 세밀한 조직망이 많이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와 같은 정책수행 기구의 형태로는 청소년 나눔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따라서 우선,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수행의 중추기구인 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를 확대하여 명실공히 한국 청소년 나눔활동의 중추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확대 개편된 참여봉사부에서 외국 청소년자원봉사기관과의 연계도 수행하고 공동 포럼도 개최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예산 및 인력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의 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의 확대에 걸맞게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활동 인프라인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군구 단위에서의 청소년 나눔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나눔활동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0) 관련 법률의 개정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나눔활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등이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고(청소년기본법, 201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에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세분화된 조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의 표과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에 대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정의)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자원봉사활동·기부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5조(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의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청소년기본법[법제처시행 2015.6.22.]; 청소년활동진흥법[법제처시행 2015.8.4.], (2015. 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5년 11월 10일 인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pp.36의 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고 재작성한 것임.

11) 정책 추진단계

제안된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는 주관부처인 교육부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향후 3년간 정착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강화도 주관부처인 교육부에서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역시 내년부터 시행하되 향후 3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도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 등의 협조를 얻어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역시 내년부터 시행하되 향후 3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 방안은 주관부처인 교육부에서 부작용 등을 감안한 제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후내년인 2017년부터 시행하되 3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강화와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도 주관부처인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계획 등 준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후내년인 2017년부터 시행하되 3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은 교육부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내년부터 시행하되 향후 3년간 정착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두볼넷 시스템의 개편은 비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무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내년인 2017년부터 시행하되 3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 수행기구의 체계화와 관련 법률의 개정도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후내년인 2017년부터 시행하되 4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정책과제	주관 부처	연계 부처 및 기관	일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	교육부	교육청	→	→	→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	→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	→		
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	→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	→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	→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교육청	-	→	→	→		
두볼넷 시스템의 상호작용 강화형으로의 개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원		→	→	→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 수행기구의 체계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원		→	→	→	→
관련 법률의 개정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원		→	→	→	→

.....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강철희 (2004). 자선적 행위 조사 연구에 대한 소고: 기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3(1), 5-43.
- 강철희, 유재윤, 박소현 (2012). 기부와 자원봉사에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누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누가 결합적으로 참여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273-298.
- 강현철 (2015). 청소년 나눔활동 표본설계보고서.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구재관, 권향임, 김근아, 김남용, 김현옥, 박성석 외 (2013). **자원봉사론**. 창지사.
- 구지운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93-122.
- 권현수 (2010). 자원봉사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별 다집단 분석의 적용.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83-107.
- 김광일, 김재황,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덕주 (2009).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원학회지**, 4(1), 123-146.
- 김동배, 조학래 (1996). **청소년 자원봉사의 길잡이**. 서울: 동인.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에 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준 (2003). 자원봉사활동 참가자의 개인별 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4), 253-270.
- 김숙경 (2005). 자원봉사자 개인 및 조직특성에 따른 봉사활동의 지속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6, 1-22.
- 김숙정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국어교과교육연구**, 19, 181-202.
- 김연, 김정우 (2014). 자선모금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89-113.
- 김연수, 이광석 (2011). 모금활동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25-51.

- 김영채 (2010). 창의, 인성, 봉사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사고개발**, 6(2), 1-24.
- 김한구, 안성호, 정하성, 황택주, 권중돈, 이창수 외 (1997). **자원봉사론-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 김현나 (2014). 재능기부 자원봉사의 여가적 의미와 가치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54-65.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관숙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선향 (2010).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과 봉사학습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167-186.
- 박성복, 김규희 (2008).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복지행정논총**, 18(2), 91-113.
- 박세경 (2010). 미국 국가봉사단 AmeriCorps의 활동 현황. **보건복지포럼** 11월, 90-99.
- 박완성, 김기수 (2012). 고교생의 봉사활동이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4(1), 23-40.
- 박재숙 (2013). 중학교 신입생의 봉사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9), 1-2.
- 박종철, 이용운 (2012). 소득수준과 자아해석 유형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경영연구**, 14(2), 107-124.
- 박태규, 윤병호, 정진욱 (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박혜준, 김윤경 (2010). 봉사학습의 도덕교육적 함의와 교사의 역할. **도덕윤리과교육**, 31, 187-216.
- 백은영 (2012). **청소년 자원봉사 어떻게 할까?**. 도서출판 초록우체통.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 (2015.07.03.).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https://www.vms.or.kr/index.jsp> 에서 2015년 7월 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5). **나눔기본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안전행정부 (2013). **2013 안전행정백서**.
-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외국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혜순 (2014). 재능기부 정책 현황 분석 및 무용 전공 대학생의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3(5), 1085-1098.
- 우정자 (2012).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3), 119-147.
- 원미순, 박혜숙 (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225-245.
- 윤지윤 (2010). **청소년의 창의적 인성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상 (2014). 청소년 봉사활동의 실태 및 발전과제. **법정리뷰**, 31(1), 193-224.
-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김재민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I -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II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13-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박선영, 조남익 (2014).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14-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2015.10.30.).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15호-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수애, 이성태 (2009).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69-95.
- 이순자 (200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원학회지**, 4(1), 173-190.
- 이정해, 김현주 (2014). 물질적 지원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 73—95.
-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청소년 자원봉사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121-146.

- 전신현 (2011).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8(1), 55-72.
- 전신현 (2015). 대학생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도움행동 원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6(1), 195-215.
- 정진경 (2012). 자원봉사개념의 재해석과 통합적 적용의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 31-52.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가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21(4), 729-744.
- 진무두 (2012). 재능기부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 **도시와 빈곤**, 98, 23-31.
- 청소년기본법[법제처시행 2015.6.22.](2015.11.10.). <http://www.law.go.kr> 에서 2015.11.10. 인출.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a).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청소년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콜로키움 자료집 2호**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정책리포트 2호**
- 청소년활동진흥법[법제처시행 2015.8.4.]. (2015.11.10.). <http://www.law.go.kr> 에서 2015.11.10. 인출.
-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향순, 정태자 (201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 개발의 관계. **한국정책연구**, 10(1), 311-331.
- 크레존넷 (2015.04.15.). 창의적 체험활동. <http://www.crezone.net/>에서 2015년 4월 15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05.13.).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 개인참여형 신청페이지. <http://dovol.youth.go.kr/dovol/ds/cJoin/a/a/view01.do> 에서 2015년 5월 13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07.03.).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 홈페이지. <http://dovol.youth.go.kr/dovol/index.do#>에서 2015년 7월 3일 인출
- 행정자치부 (2015.07.03.).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 <https://www.1365.go.kr:444/nanum/prtl/web/vols/volsMain.do> 에서 2015년 7월 3일 인출.
- 홍은진 (2006). 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33-71.
- 황여정, 김경근 (2013). 고등학생의 더불어 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9(1), 61-86.
- 황창순, 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 한국비영리연구, 1(2), 33-73.
- Bmycharity (2015.11.03.). Bmycharity 홈페이지. <http://www.bmycharity.com> 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 Brown, E., &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 Chapman, M., Zahn-Waxler, C., Cooperman, G., & Iannotti, R. (1987). Empathy and responsibility in the motivation of children's hel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40-145.
-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2015.11.03.).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홈페이지. <http://www.nationalservice.gov>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 Dormody, T. J., & Seevers, B. S. (1994).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5(2):65-71.
- Drollinger, T. L., & Johnson, D. P. (1995). Life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Consumer Interests Annual*, 41, 106-111.
- European Commission(2009).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
- Hamilton, S. F., & Fenzel, L. M. (1988). The impa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Evidence of program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65-80.
- Janoski, T., Musick, M., & Wilson, J. (1998). Being volunteered?: The impa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o-social attitudes on volunteering. *Sociological Forum*, 13(3), 495-520.
- Johnson, M. K., Beebe, T., Mortimer, J. T., & Snyder, M. (1998). Volunteerism in Adolescence: A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3), 309-332.
- Metz, E., McLellan, J., & Youniss, J. (2003). Types of voluntary service and adolescents' civic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2), 188-203.

- Nenga, S. K. (2012). Not the community, but a community: Transforming youth into citizens through volunteer work. *Journal of Youth Studies*, 15(8), 1063-1077.
- Network for good (2015.11.03.). Network for good 홈페이지. <http://www.networkforgood.com> 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ales, P. C., Blyth, D. A., Berkas, T. H., & Kielsmeier, J. C. (2000). The effects of service-learn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responsibility and academic succes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3), 332-358.
- Thoits, P. A., & Hewitt, L. N.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15-131.
- United Way of Tuscon and Southern Arizona (2015.11.03.). United Way of Tuscon and Southern Arizona 홈페이지. <http://www.unitedwaytucson.org/volunteer> 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 Vinspired (2015.11.03.). Vinspired 홈페이지. <https://vinspired.com> 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 Women's Foundation of Southern Arizona (2015.11.03.). Women's Foundation of Southern Arizona 홈페이지. <http://www.womengiving.org/> 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 Wingenbach, G. J. (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D), Iowa State University.



부 록

부록 1. 한국 청소년의 나눔활동에 대한 조사 설문지

DPID

ID

학교

학급

설문지연번호

한국 청소년의 나눔활동에 대한 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1989년 설립 이래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복지·활동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나눔활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의 초4~초6, 중1~중3, 고1~고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봉사, 기부 등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 요인, 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발굴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시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연구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 415-2228

실시진행기관:
조사문의처:

미디어리서치
문화정 부장 (02) 3488-2728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ri.re.kr>

Q1) 교급/학년 Q2) 성별 Q3) 출생년월 Q4) 사는 곳	① 초등학교 4학년 ④ 중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1학년 ① 남자 (양력) 년 월 ☞ 사는 곳을 적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② 초등학교 5학년 ⑤ 중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2학년 ② 여자 ③ 초등학교 6학년 ⑥ 중학교 3학년 ⑨ 고등학교 3학년
--	--	---

학교명 면접일자 면접원 ID/성명	_____ 학교 2015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S/N확인	학교지역 _____시(도) _____구(군) _____동(읍/면)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이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을 돕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남을 돕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을 돕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귀하는 지난 1년간 나눔활동(봉사, 기부 등)과 관련된 조직(동아리, 단체, 시설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B」로 가세요

☞ 나는 지난 1년간 나눔활동과 관련된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어서 ‘②’에 표시한 후, 문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나요? 지난 1년간 총 참여횟수, 참여시간은 직접 기입하고, 주된 참여형태는 보기에서 번호 하나를 골라 기입해주시고, **만족도는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세요.

☞ 지침에 따라 차례대로 지난 1년간 총 참여횟수 기입, 총 참여시간 기입, 주된 참여형태 보기번호 기입, 만족도 번호 표기 순으로 빠짐없이 응답합니다.

PART I. 나눔활동의 실태

문1.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나요?

지난 1년간 총 참여횟수, 참여시간은 직접 기입하고, 주된 참여형태는 보기에서 번호 하나를 골라 기입하고,

만족도는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세요.

보기	주된 참여형태 :	1) 혼자서 3)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5) 일반 친구들과 함께 7) 기타()	2) 반 친구들과 함께 4) 시설, 단체 친구들과 함께 6) 가족들과 함께
----	-----------	---	---

	참여횟수	참여시간	주된 참여형태	만족도				
	지난 1년간 총 참여횟수	지난 1년간 총 참여시간	*위의 보기 참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교내봉사활동 (학습부진,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_____회	_____시간	()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사회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돕기 / 불우이웃돕기 /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 / 재해구호, 국제협력과 난민 구호활동 등)	_____회	_____시간	()	①	②	③	④	⑤
3) 자연환경보호활동 (깨끗한 환경만들기 / 자연보호, 식목활동 / 저탄소생활 습관화 /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활동 등)	_____회	_____시간	()	①	②	③	④	⑤
4)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주변정화, 환경보전, 헌혈, 각종 편견극복 캠페인 등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캠페인 등)	_____회	_____시간	()	①	②	③	④	⑤

문2.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외에 다음과 같은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나요? 지난 1년간 총 참여횟수, 참여시간은 직접 기입하고, 주된 참여형태는 보기에서 번호 하나를 골라 기입하고, 만족도는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세요.

보기	주된 참여형태 :	1) 혼자서 3)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5) 일반 친구들과 함께 7) 기타()	2) 반 친구들과 함께 4) 시설, 단체 친구들과 함께 6) 가족들과 함께
----	-----------	---	---

	참여횟수	참여시간	주된 참여형태	만족도				
	지난 1년간 총 참여횟수	지난 1년간 총 참여시간	*위의 보기 참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교내봉사활동 (학습부진,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_____회	_____시간	(_____)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사회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돕기 / 불우이웃돕기 /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에서 위문활동 / 재해구호, 국제협력과 난민 구호활동 등)	_____회	_____시간	(_____)	①	②	③	④	⑤
3) 자연환경보호활동 (깨끗한 환경만들기 / 자연보호, 식목활동 / 저탄소생활 습관화 /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활동 등)	_____회	_____시간	(_____)	①	②	③	④	⑤
4)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주변정화, 환경보전, 헌혈, 각종 편견극복 캠페인 등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캠페인 등)	_____회	_____시간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 문항은 귀하가 지난 1년간 봉사활동(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모두 포함)에 참여하면서 느낀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봉사활동 참여에 대해 지금보다 많고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진로(인식, 탐색, 준비)와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봉사활동 참여 전 사전교육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기관 지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봉사활동 참여 후 사후평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는 지난 1년간 기부(현금, 현물, 포인트 등 재산기부(지식, 육체적 능력 기부는 해당 없음)를 말함, 단 절, 교회, 성당 등 종교적 기부는 제외)를 한 적이 있나요? 지난 1년간 참여여부는 해당번호에 표기하고, 총 참여횟수는 직접 기입하고, 주된 참여형태는 보기에서 번호 하나를 골라 기입해주시고, 만족도는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세요.

보기	주된 참여형태 :		1) 혼자서	2) 반 친구들과 함께
			3)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4) 시설, 단체 친구들과 함께
			5) 일반 친구들과 함께	6) 가족들과 함께
			7) 기타()	

	참여여부		참여횟수	주된 참여형태	만족도				
	없다	있다	지난 1년간 총 참여횟수	*위의 보기 참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현금기부	①	②	_____회	()	①	②	③	④	⑤
2) 현물기부	①	②	_____회	()	①	②	③	④	⑤
3) 포인트 기부	①	②	_____회	()	①	②	③	④	⑤

문5. 다음 문항은 기부(현금, 현물, 포인트 등 재산기부(지식, 육체적 능력 기부는 해당 없음)를 말함, 단 절, 교회, 성당 등 종교적 기부는 제외)활동 참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에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기부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참여할 수 있는 기부활동 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I. 나눔활동 참여요인

문6. 다음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을 도울 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남을 도울 때 돈 등 여러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남을 도우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평판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남을 도우면 나 자신이 뿌듯함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남을 도우면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을 때 죄책감이 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을 때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문7. 다음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가 그런 것과 같이 가슴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문8. 다음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9. 다음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을 돕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서는 남을 돕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남을 돕는 것은 단순히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10. 다음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아니어도 내가 아는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남을 도울 기회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는 지난 1년간 나눔활동(봉사, 기부 등)과 관련된 조직(동아리, 단체, 시설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12』로 가세요

문11-1.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다음은 귀하가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 활동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기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의 구성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지난 1년간 참여한 나눔활동관련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PART Ⅲ. 나눔활동의 효과

문12.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는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몇회?
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①	②	_____ 회
2)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①	②	_____ 회
3) 선생님 앞에서 소리지르며 대들기	①	②	_____ 회
4) 시험시간에 컨닝(부정행위) 하기	①	②	_____ 회
5)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①	②	_____ 회
6) 학용품비, 준비물비 다른데 사용하기	①	②	_____ 회
7)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①	②	_____ 회
8)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①	②	_____ 회
9) 다른 친구를 협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음)하기	①	②	_____ 회
10)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①	②	_____ 회
술마시기	①	②	지난 1년간_____ 회
☞ 지난 1년 동안 몇 번 마셨다면 지난 1년간에 기록 ☞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마시면 지난 1달간에 기록			지난 1달간_____ 회
담배 피우기	①	②	지난 1년간_____ 회
☞ 지난 1년 동안 몇 번 피워봤으면 지난 1년간에 기록 ☞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피우면 지난 1달간에 기록 ☞ 하루에 한번 이상 피우면 하루 평균에 기록			지난 1달간_____ 회
			하루 평균 _____ 회
13) 다른 사람을(부모형제가 아닌) 심하게 때리기	①	②	_____ 회
14)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기(뺏기기)	①	②	_____ 회
15)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①	②	_____ 회
16) 가출하기	①	②	_____ 회

문16.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만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남보다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 공부 외에 원하는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동아리 활동이나 개인적 활동을 통해 적성을 발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학교 밖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체험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교 친구 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을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8. 귀하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건강한 편이다
- ⑤ 매우 건강한 편이다

문19.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놀이나 모듬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교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7.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일반적으로 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재민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그들과 함께 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실 내심으로는 남을 돕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 앞에 노약자가 서 있다면, 나는 몸이 피곤하여도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보지 않는 곳은 대충 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나 환경정리와 같은 특별한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소속된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기아에 처한 소말리아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집 주위에 장애인 시설이 생긴다해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불우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나에게 없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V. 배경질문

배경문항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시 1 :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2 :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2. 귀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보호자)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보호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3. 귀하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4. 귀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①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3) 보호자	①	①	②

배경문항5. 귀하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6.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고졸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 ⑤ 박사

배경문항7.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해당되는 응답에 표기해 주세요.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3) 보호자	①	①	②	③	④	⑤
(4) 본인	-	①	②	③	④	⑤

♡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효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언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기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혜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종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 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Abstract

State of Adolescent Sharing Activities and Improvement Pl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of policies related to sharing activities of adolescents such as volunteering and donating goods to strengthen the social communal character of adolescents that has been weakening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bipolarization and individualism,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For this, first, the concept of adolescent sharing activities such as volunteering and donations, impact factor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participation effects were examined. Second, after taking a brief look at the features of policies related to major adolescent sharing activities of Korea and abroad, thir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state of adolescent sharing activities. After conducting expert FGI on experts, fourth, final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on adolescent sharing activities through policy meeting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83.9% of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in the past year and 51.8% made donations. It was found that various factors related to sharing activities such as social capital, opportunity to make contributions, awareness of friends and family, personal norms, altruistic motivation, and personal enjoyment affected adolescents in participation of sharing activities.

Also, sharing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an impact on the personal and social growth of adolescents in the order of donation activities, self-planned volunteer activities, and volunteer activities planned out as school educational courses. Similar results were deduced in qualitative studies as well. In the expert FGI, need to expand self-planned volunteer activities, need to promote volunteer-related club activities, need for careful activation of adolescent donation activities, and strengthening of sharing activity education for adolescents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policy tasks such as increased self-planned volunteer activity time, strengthened adolescent sharing activity education, activation of volunteer-related club activities, limited promotion of adolescent donation activities, strengthened linking with community of adolescent sharing activities, establishment of expert coordinators for adolescent sharing activities, and strengthened incentives for teachers in charge of adolescent sharing activities were presented.

Keywords: Sharing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Adolescent sharing education, Adolescent volunteer-related club activities

연구보고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42) 254-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49-6 93330